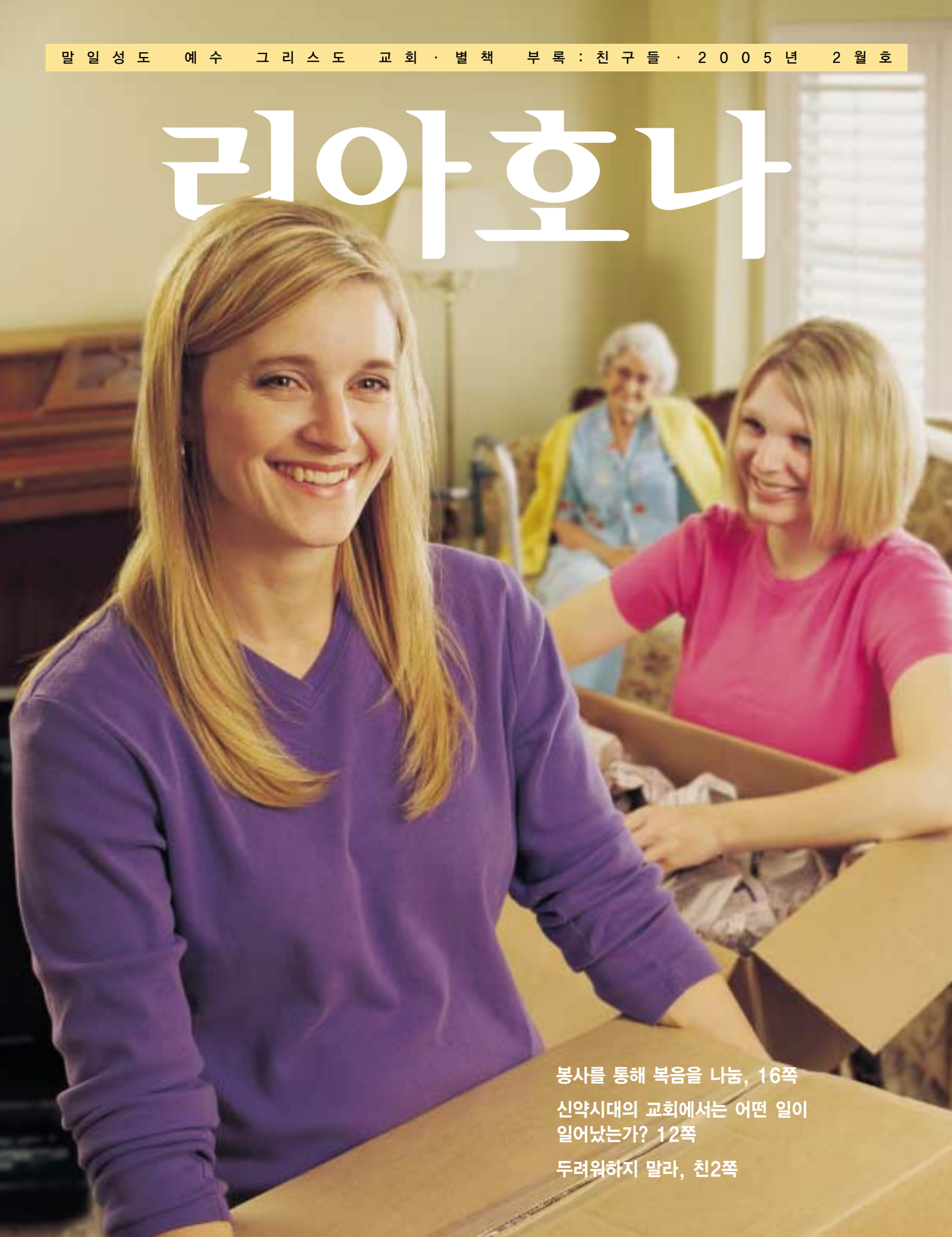


리아호나



봉사를 통해 복음을 나눔, 16쪽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쪽
두려워하지 말라, 친2쪽

4 교회에서 우리 일을 돕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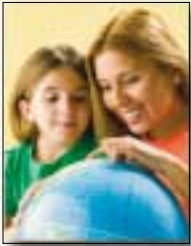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봉사를
돕도록 권유하는
것은 회원 선교 사업을 위한
일곱 가지 제언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일곱 가지 교훈”,
16쪽을 참고한다.



리아호나



표지
모델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친구들 표지
모델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시

"여러분은 시험과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8쪽 참조

성인

- 2 대관장단 메시지: 진실로 볼 수 있는 눈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6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일곱 가지 교훈
클레이튼 엠 크리스텐슨 장로와 크리스틴 퀸 크리스텐슨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신화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을 기뻐하며
- 28 의의 길로 돌아옴: 외설물을 버림 *로리 시 리드*
- 34 가족을 강화함: 완전을 향한 우리의 발전
- 36 말일성도의 소리
우리가 등반해도 좋을까요? *마이클 티 리치*
하스민과 안식일 *마르셀라 콜라베라르디노 데 미티오*
"예기치 않았던" 만남 *익명*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내게 봉사했던 분이였다 *호세 살바도르 아녜스 로페스*
- 42 교리와 성약에 담긴 메시지: 계시의 영 *엠 곤잘로 세플베다 장로*
- 44 교사 정원회: 감리 감독단과의 인터뷰
- 48 애독자 편지

청소년

- 8 여러분은 시험과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편 골든 이세 장로*
- 11 축복이 된 나의 기도 *브랑제르 까비엘*
- 12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새나 버틀러*
- 22 질의 응답: 저는 복음을 사랑하지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 26 선생님을 가르침 *프린스 아이헨코로*
- 41 포스터: 속지 마십시오
- 46 신권회의 한 교사 *파멜라 리드*
- 47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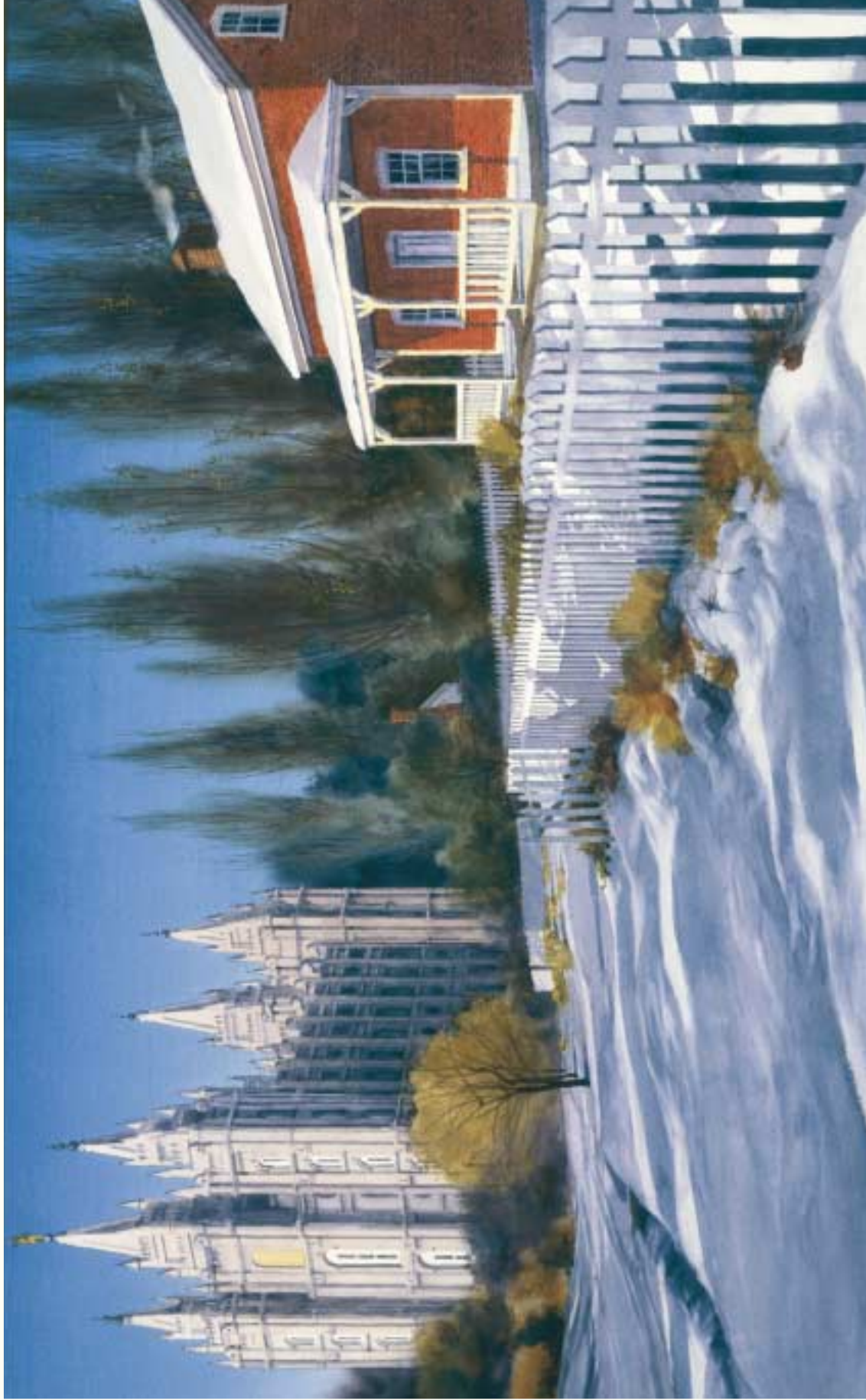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친4 특별한 증인: 인물 탐구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친5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다
- 친6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생애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 친8 네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수잔 비 미첼*
- 친11 고전적인 말씀: 한 자매님의 모범 *매튜 카울리 장로*
- 친12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패트리시아 리스 로퍼
- 친14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가렛 리퍼스
- 친16 어린 친구들을 위해



신화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을 기뻐하며, 25쪽
참조





메모리 그로브, 올 라운드스

1893년 4월 6일 헌납 이후 초겨울의 솔트레이크 성전의 이 모습은 지금은 성전 북동쪽의 평화스런 지역인 메모리 그로브로 알려져 있는 곳에서 본 것이다.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위스런, 리처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더블류 롤프 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톨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라트 네베카 오운, 수잔 부렛, 사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텔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레이 오데커, 애덤 시 홀슨, 슈디스 엠 팔라, 비비안 홀슨,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델, 킴벌리 엘,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맨 캠프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렌 프랫,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버, 타드 알 피터슨, 랄프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윌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 467호, 제 42권, 제 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희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February 2005 No. 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여러분은 시험과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8쪽: 종이를 오려 징검다리 돌을 여러 개 만드십시오.

돌 하나에 “마태복음 5:16;

6:24, 33”이라고 적고, 다른 하나에

“교리와 성약 82:10”이라고 적는다. 이

성구들에 있는 개념이 어떻게 행복에

이르는 “징검다리 돌”이 될 수 있는지

토론한다. 크리스토퍼 골든 장로의 경험에

관해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가족들에게

그들의 느낌을 나눌 것을 권고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쪽: 교회 건물을 그린 뒤

그것을 12조각으로 잘라낸다. 이 기사의

소재목들을 각 조각에 적고 그것들을

숨긴다. 가족들에게 그것들을 찾아서

“교회”를 회복해 보라고 한다. 각 소재목

부분을 읽고 토론한다. 회복에 관해

간증한다.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일곱 가지

교훈”, 16쪽: 가족 개개인에게 이 기사에

실린 교훈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눌

것을 권유한다. 다음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족이 실천할 교훈 한 가지를 선정한다.

선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도울 수 있는지 토론해 볼

것을 고려한다.

“완전을 향한 우리의 발전”, 34쪽: 가족

개개인에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인생의

목적에 관해 귀기울이고 그에 관한 생각을

열거해 볼 것을 권유한다. 목록을

이용하여 인생의 목적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 선언문의 한 부분을 암기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두려워하지 말라”, 친2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그토록 낙천적인

이유를 읽는다. 기사에 등장하는

한 남아메리카 여인의 용기에

관해 이야기한다. 친구를 교회로

초대하거나 복음 질문에 대답할 때 할 말을

연극으로 꾸며 본다. 종이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36)는

말씀을 적고 여러분의 가정에 붙여 놓는다.

“한 자매님의 모범”, 친11쪽: 가족

개개인에게 빈 유리 항아리를 보여 준다.

그들에게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이야기를 함께 읽는다. 이

자매의 병에 담겨 있던 것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한다. 십일조에 관한 간증을 나눈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성신, 25, 36, 42
가르침, 1, 친12	성전, 2, 34, 36
가정의 밤, 1	신권, 2, 44, 46
가족, 34, 친8, 친16	신성한 속성, 34, 친5, 친14
간증, 22	신앙, 22, 34, 친2
개종, 26, 42, 친8	신화, 25
게시, 36, 42	십일조, 친11
교리와 성약, 42	안식일, 36
교육, 친6	예수 그리스도, 2, 25, 28, 친5, 친14
구원의 계획, 34, 친5	외설물, 28
기도, 11, 44, 친5	죄, 41
두려움, 22, 친2	지도력, 44, 47
맥케이, 데이비드 오, 친6	초등학교, 친14
모범, 8, 26, 36, 친11	패커, 보이드 케이, 친4
방문 교육, 25	하나님 아버지, 25, 친5, 친14
배도, 12	회개, 28
봉사, 16, 36, 친12	회복, 2, 12, 25
사랑, 친12, 친14	
선교 사업, 8, 11, 16, 22, 26, 친2	
선택의지, 8, 34, 친8	



진실로 볼 수 있는 눈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예 수님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시며 가르치실 때, 알고 느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진실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시력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밝은 대낮에 어둠 속을 거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후자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맹인용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탁, 탁, 탁” 하는 익숙한 소리에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실한 핸드레드 옆에 두지 않을 것이며, 또한 목에 “저는 맹인입니다.”라고 적은 표시를 걸고 다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눈이 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 복수심, 증오심, 편견, 무지 때문에, 그리고 귀중한 기회를 소홀히 함으로써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¹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 빌립의 친구처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²

오래 전에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스테이크장단의 한 보좌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마치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며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우리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스테이크 사무실에서 만난 때는 심한 비바람이 불던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천둥이 쳤습니다. 즉시 건물의 조명이 거의 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앞뿔보는 지도자에게 팔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팔을 잡으시지요. 계단으로 내려가시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분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분명 그 얼굴에 미소를 띠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몬슨 형제님. 형제님의 팔을 이리 주십시오. 제가 형제님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긴 제가 더 잘 압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빛으로 가득 찬 그 형제님의 인도를 받아 그 계단을 내려왔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눈이 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 복수심, 증오심, 편견, 무지 때문에, 그리고 귀중한 기회를 소홀히 함으로써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 빌립의 친구처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월 터스토버는 전세
열차로 독일
곳곳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와 함께
만나 성찬을 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상의 빛

오래 전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사람이 눈이 먼 이유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³

이 기적과 관련하여 바리새인 사이에서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예수]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⁴

여러분과 제게 선임 사도인 베드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시몬이라 불렸던 어부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의문을 품고 믿음이 없으며 성급했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참으로 세 번이나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밀치고 야유하며 때리는 와중에서 “굴욕적인 고통을 당하시던 주님은 침묵의 위엄을 보이시며 ...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⁵ 한 연대 학자는 그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 [베드로는] 더 이상 위험을 몰랐으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 [그는] ‘재벽이 오는 것을 맞기 위해 ... 어둠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이 상심한 회개자는 자신의 양심의 범정에 [섰으며], 그의 과거의 삶과,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의 연약함, 과거의 이기심은

새롭고 [보다 고귀한] 탄생에서 생겨나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⁶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개심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⁷

어부 시몬은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은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시간의 흐름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속주의 능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과 제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⁸

헤롤드 비 리 대관장(1899~1973)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 거하는 모든 영혼은 그가 어디에 살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그가 부자이든 혹은 가난하던 간에 태어날 때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는 첫 번째 빛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보편적인 예지의 빛입니다. [물론은] 그 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라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모로나에서 7:16)”⁹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구세주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월터 스토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월터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며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세웠고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월터 스토버는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국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가 만나고 봉사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전쟁으로 크게 황폐화된 아름다운 도시 베를린에 두 개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회원들을 위해 드레스덴에서의 집회를 계획했고, 그런 다음 전세 열차로 온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와 함께 만나

성찬을 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터 스토버의 장례식에서 그의 사위 토마스 시 레덕은 월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만난 모든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능력을 갖고 계셨으며 그에 알맞게 행동하셨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밤에 한 낯선 사람을 만났다네
그의 등잔은 꺼져 있었다네
나는 잠시 멈추고 내 램프에서
그의 등잔에 불을 밝히게 했다

얼마 후 큰 폭풍우가 일어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네
바람이 그쳤을 때
내 등잔은 꺼져 있었다네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이 내게 돌아왔고
그의 등잔은 여전히 밝게 빛나니,
그는 소중한 불꽃으로
내 등잔에 불을 붙였네.¹⁰

아마 이 시의 교훈은 단순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 곳에서 일어난 일로 성스럽게 된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1820년 어느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생후 처음으로 그러한 일을 계획하였는데 나의 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때까지 소리를 내어 기도하려고 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¹¹

보이지 않는 권세에 의한 괴로운 경험을 견디어 낸 후, 요셉은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나는 …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리폴라 형제가 요청한 대로 축복이

주어졌으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지혜에 따라 제가 빛을 보게 되든 아니면 평생 내내 어둠을 보게 되든, 제가 지금 보고 있고 세계 생명의 빛을 준 당신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 영원히 감사드리겠나이다.”

중의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¹²

요셉은 들었습니다. 요셉은 배웠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몬슨 형제님, 만일 구세주께서 형제님 앞에 나타나신다면, 형제님은 그분께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무 질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듣고 싶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태평양의 한 섬에서, 작은 보트 한 척이 엉성한 부두의 정박지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두 명의 폴리네시아 여인이 보트에서 내리는 멜리 물리폴라를 도와 그를 마을 도로로 이어지는 낡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두 여인은 한밤중에 하늘에서 반짝이는 찬란한 별들을 보며 경탄했습니다. 친근한 달빛이 길을 가는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인 멜리 물리폴라는 자연의 이러한 장관인 달, 별, 하늘을

감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빛이 갑자기 어둠으로 바뀌고 낮이 영원한 밤이 되었던 그 운명의 날까지는 그도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복음의 회복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는 이 가르침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사람이 섬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긴 항해를 추진했습니다. 물리폴라 형제는 거룩한 신권을 지닌 사람들의 손으로 축복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시력을 잃은 그의 두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은 그의 갈색 뺨을 따라 내려와 결국 그의 원주민 옷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선 제가 눈이 멀었음을 아시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저를 축복했으니, 만일 당신의 뜻이거든 제 시력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에 따라 제가 빛을 보게 되든 아니면 평생 내내 어둠을 보게

되든, 제가 지금 보고 있고 세계 생명의 빛을 준 당신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 영원히 감사드리겠나이다.”

기도를 마친 그는 일어서더니 축복을 준 것에 대해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한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¹³

오늘날은 성전 건축의 시기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많은 성전이 세워지고 헌납되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그러한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매우 중요한 의식들에 대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성전은 그 곳에 참석하고 그 성전의 완공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들에게도 비출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1838~1918)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속박의 사슬이 그들에게서 풀릴 것이며,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암흑이 깨끗이 사라지고 빛이 그들 위에 비추게 되어,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 행해진 이 곳에서의 사업에 대해 듣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¹⁴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분이 되[라]”고 촉구했습니다.¹⁵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¹⁶

저는 시인 미니 루이스 하스킨스가 쓴 다음의 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한 해의 문에 서 있던 사람에게 말했다.
“내게 빛을 주오, 내가 모르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가 대답했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놓으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빛보다 더 낫고 아는 길보다 더 안전할 게요.”
그래서 나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찾으며 그 밤 속으로 기쁘게 걸었지.
그분은 언덕으로 또 외진 동쪽에 있는 하루의 시작으로 나를 인도하셨지!¹⁷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우리의 빛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

주

1. 마태복음 13:15.
2. 사도행전 8:31.
3. 요한복음 9:3, 5~7.
4. 요한복음 9:24~25.
5. Frederic W. Farrar, *The Life of Christ*(1874년), 580쪽; 누가복음 22:61 참조.
6. *The Life of Christ*, 581쪽.
7. 에베소서 4:22, 24.
8. 요한복음 11:43.
9. *Stand Ye in Holy Places*(1974년), 115쪽.
10. Lon Woodrum, “Lamps”.
11. 요셉 스미스서 2:14.
12. 요셉 스미스서 2:16~17.
13. 요한복음 8:12.
1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88년), 247쪽.
15. 디모데전서 4:12.
16. 야고보서 1:22.
17. “The Gate of the Year”, in James Dalton Morrison, ed.,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1948년), 92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이다.

1. 전구나 촛불을 보여 준다. 우리가 빛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는 다른 방법 몇 가지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라고 가족들에게 권유한다.(목록 작성을 돕기 위해 이 기사에 있는 소제목을 참고한다.) 이 기사에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활용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주시는 빛에 대해 간증한다.

2. 월터 스토버와 멜리 물리폴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해 잘 들어 보라고 부탁한다. 이 이야기들을 읽은 후에 가족들이 그들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토론한다.

3. 이 메시지에 있는 예나 이야기들 중 한 가지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빛을 가져다주시는지에 대해 가족들에게 토론하도록 권유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빛을 가져다주었을 때의 경험을 나눈다.

여러분은 시험과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펬 골든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는
우리 말을 들어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나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은 시험과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시험의 나날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은 쉽게 배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배우기만 하면, 이런 교훈들은, 이 생에서는 행복을 향한 디딤돌이 되고 다가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경험은 제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교훈들 중에서 두 가지를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용기있게 생각을 말하십시오

바람이 몹시 불던 추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 남아프리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우리 분대 가운데 열 명이 이제 막 잡일을 마치고 쉬기 위해 우리 막사에 모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화의 많은 부분이 그런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늘 그러하듯 노골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했고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돌려 막사 문을 보니, 문은 바람에 심하게 펄럭거리며 겨울의 한기를 막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나가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사 안에 남아서 경전을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경전을 읽는 것이 늘상 있어왔던 일이지는 했지만 그 날은 더 어려운 일이었음이 곧 판명되었습니다. 그 그룹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제 친구가 몇 가지 추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곧 더 노골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소리 내어 반대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게 혼자 잘난 척하며 분위기를 깨려 한다고 책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귀를 막고 경전 읽기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기억들이 희미해졌고, 몇 주 지나자 저는 그 경험을 잊었습니다. 2년 후 어느 날, 제 친구는 그날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많은 병사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저를 성가시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는 저를 변호해 주기 위해 일어서더니 저를 놀라게 할 정도로 진지하게 “크리스 골든은 우리 그룹에서 유일하게 참된 기독교인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제 친구와 합세해 저를 보호해 주었고, 그로 인해 제 비판자는 잠잠해졌습니다.

나중에 제 친구와 함께 반달이 비치는 어두운 밤에 우리 참호로 걸어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멈추더니 우리가 알고 지내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진지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 날 저녁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은 진심이었어. 사실 너보다 자신의 신앙에 더 충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크리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고 항상 노력해 왔지만, 많은 말일성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했고, 제가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항상 노력해 왔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너는 나를 딱 한 번 실망시켰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책망에 저는 무척 놀라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마음속으로 황급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년 전의 바람이 몹시 심했던 그 추운 일요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제가 거의 잊고 있었던 그 날에 대한 고통스런 기억이 제 친구의 말에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추운 일요일 오후에 우리가 막사 안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일을 기억하니? 솔직히 지금은 난처했었다고 느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

저는 인정한다는 뜻으로 가만히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친구와 마주선 저는 그 밤의 어둠이 저의 불편한 마음을 가려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더러운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네가 부탁해 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의 찌르는 듯한 책망에 뒤이은 긴 침묵의 시간 동안, 깊은 실망감이 제 안에서 솟아났습니다. 저는 그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제 자신을 실망시켰던 것입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의 참 의미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마태복음 6:24)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라는 권고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제가 배운 또 다른 교훈은 오래 전에 제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선교부에서 선교사로서 겪은 경험에서 얻었습니다. 어느 한 날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금식과 기도를 하며 오랫동안 열심히 전도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인근의 상점으로 향했을 때는



보통으로 우리가 집을 향해 떠났던 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너무 늦은 밤이라 상점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상의할 때 저는 마을의 다른 편에 있는 상점이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 곳에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상점은 열려 있었습니다.

초콜릿을 집기 위해 몸을 구부렸을 때 누군가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했던 한 자매의 웃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그녀가 저활동 회원이었으며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그녀의 가족은 우리 전도 지역에서 15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외로움을 느꼈고 교회에 다니던 때가 그리웠지만, 수줍음

많은 성격인지라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그 지역의 와드에 소개시킬 수 있는, 그녀가 잘 아는 누군가와 접촉하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점에서 우리를 만난 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 상점에 들른 것은 처음이었고, 갑자기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동반자와 저는 그녀와 남편을 반갑게 교회로 맞이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녀는 어떻게든 이 경험의 영향을 받았던 온 식구들의 상세한 소식을 제게 편지로 보내 주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활동화되기 이전에 그녀의 확대 가족 중에서 교회 회원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저활동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교회에서 다시 활동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침례를 받았고, 두 사람은 함께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키웠습니다. 그녀가 활동 회원이 된 이후로 20명이 넘는 식구들이 다시 활동화되거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결혼했고, 일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감독으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자매의 충실함, 그리고 그녀의 겸손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 늦은 저녁에 만났던 그 상점은 평소 다니지 않던 길에 있었고, 양쪽 모두의 집에서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위대한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 상점을 이용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지치고 실망한 두 선교사와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다”(교리와 성약 82:10)라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셨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요청하신 일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단순히 그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경험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살피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하며, 그분은 종종 우리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에 의한 속삭임을 받아 더욱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는 어려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

축복이 된 나의 기도

브랑제르 까비엘

몇 년 전 나는 여섯 달 동안의 저활동 기간을 보낸 후에 다시 활동화되었다. 다시 한 번 옳은 길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 영적인 갈증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단 몇 달 뒤에 나는 선교사로 주님께 봉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나는 감독님과 접견을 했고, 그 분은 내가 준비하도록 도와 주셨다. 나는 올바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러는 동안에 감독님은 내 계획에 관해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 권고하셨다.

나의 부모님은 교회 회원이셨지만 9년 이상을 저활동 회원으로 지내셨다. 내 소망에 관해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그 날부터 부모님의 반대는 극심해졌다. 나는 만일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치르는 경쟁이 치열한 시험에 합격한다면, 일 년 후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부모님의 제의에 동의했다.

결국 그 해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되고 말았다. 나의 어머니는 선교 사업에 관한 내 소망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학교를 다닌 후에 어머니는 내가 정말로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재정적인 도움을 중단하셨다. 바로 그 때 내 기도가 커다란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직업을 찾도록 영감을 주셨고, 나는 그대로 행했다. 좋은 일자리 세 곳을 찾아서 지원서를 작성했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일을 다 행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

곳에서라도 좋은 회신이 오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했다.

한 회신은 겨우 3일 만에 왔다. 나는 면접을 위해 한 회사를 방문했다. 면접을 본 바로 그 날 나는 직장을 잡았다. 한 가지 문제는 나의 비용 전부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 없이 십일조를 냈다.

몇 주 후에 하숙집 주인이 나를 보자고 했다. “십중팔구 월세에 관해 이야기할거야.”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가 말했다. “자네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축복으로 인해 나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선교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내 인생에서 기적은 적절한 때에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막 나는 선교 사업을 마쳤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에 큰 감사를 느낀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시고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하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

브랑제르 까비엘은 프랑스 파리 스테이크 생캉탱 앙 이블린느 지부의 회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새나 버틀러

교회 잡지

만 일 여러분이 상호 향상 모임에 갔기 때문에 체포된다면 어떨까? 또는 간증을 했다고 죽임을 당한다면 어떨까? 여러분이 경전을 갖고 있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거나 여러분을 인도하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없다면 어떨 것인지 상상해 보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구세주의 죽음 이후 400년도 안 되어 예수께서 조직하셨던 교회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로써 대배도라고 알려진 시대가 시작되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물몬경 시대의 제자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신권을 지닐 권능도 그들과 함께 사라졌다.

당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던 때였으며, 교회가 영감 받은 지도력 없이 타락하던 때였다. 세상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다.

배도란 무엇인가?

배도란 용어는

사랑 받는 자 요한

사도 요한은 서기

93년경 또는 94년경에

반모 섬에 유배되었다.

구세주께서는 요한이 살아서

그분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한복음

21:21~23; 교리와 성약

7편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요한이 잃어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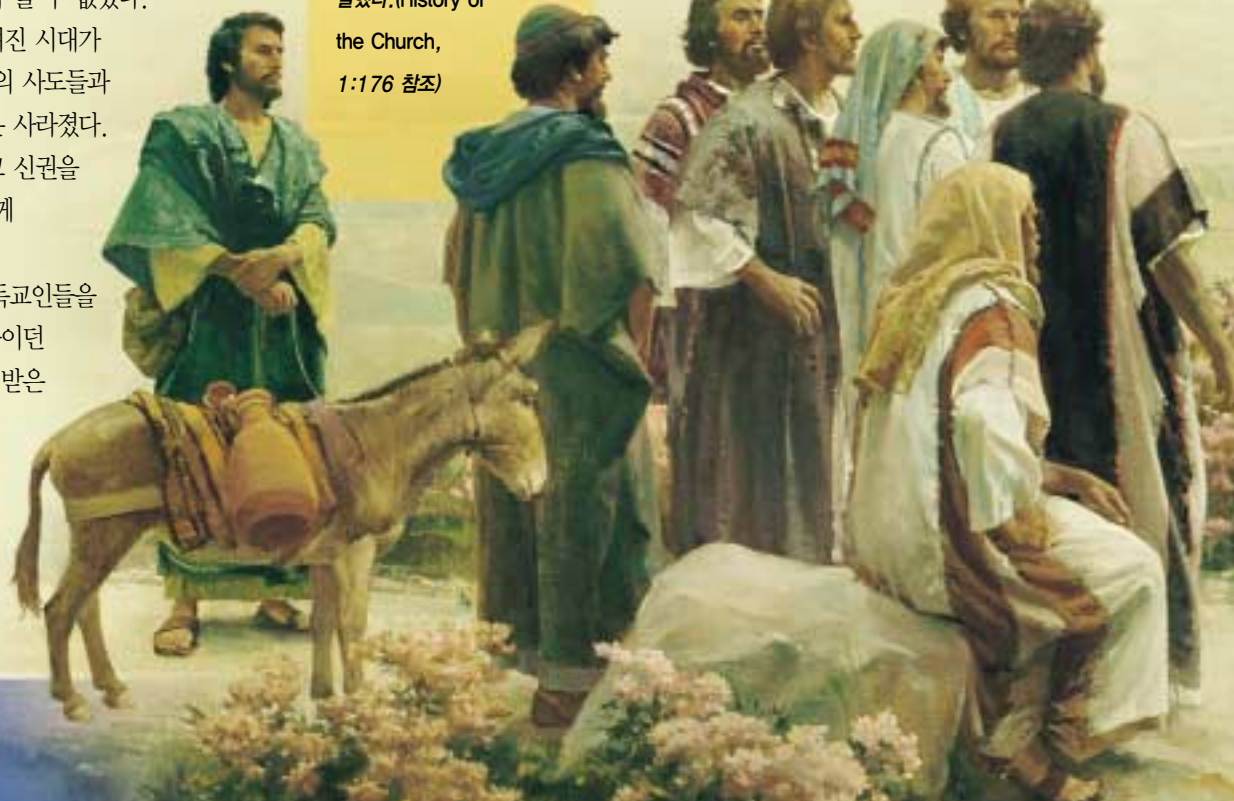
열 지파 사이에서 성역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History of
the Church,

1:176 참조)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르는 대배도는 그것 이상의 의미이다.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신권 열쇠, 또는 감리 신권 권능이 지상에서 거두어졌다. 이런 수호자들, 즉 복음의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또한 교회의 질서 및 합당성의 표준을 유지해 왔던 사도들이 없게



이런 그림: 해리 윌킨슨,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세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위클리프 비 캠프, 배도란: 그림: 딘, 사람 없는 지 요한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한다.



서기 64년 또는 65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다가 죽었다.



서기 65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초대 십이사도의 일원은 아니었다. 그는 사울이라 불렸던 유대인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구세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까지 여러 해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개종했다.(사도행전 8~9장 참조) 나중에 바울로 불렸던 사울은 위대한 사도이자 선교사가 되었다. 그는 교회에 대한 로마의 박해기간 동안에 구세주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순교당했다.

사랑 받는 자 요한은 밧모 섬에 유배되었다.



서기 93년 또는 94년

되자 회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오랫동안 교리는 타락했고 승인되지 않은 변화들이 교회 조직과 신권 의식에서 이루어졌다.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구세주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은 복음을 널리 전파했으며,

교회는 로마 제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구세주의 승천 직후에 사도들은 박해 받기 시작했다. 요한의 형제이자 초대 십이사도 중의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사도행전 12:1~2 참조) 베드로와 바울도 신약 시대 동안에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모든 사도들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구세주의 사망과 부활 이후에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다. 비록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경전상의 기록은 없으나,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베드로는 구세주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베드로는 자신이 구세주와 같은 방법으로 죽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진다.(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3:130~131 참조)

베드로의 생애는 충실 그 자체였다. 그 후 그는 현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났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1895~1985)은 베드로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충직한 동료들인,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는 지상에 돌아와 여러 세기에 걸친 어둠의 협곡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사스케하나 강둑에 나타났고, 그 중 베드로가 젊은 예언자들에게 왕국의 열쇠들을 전했는데, 그것들은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던 열쇠였습니다.”(Peter, My Brother,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971년 7월 13일], 8쪽)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



서기 324년

니케아 공의회

계시를 받는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공의회나 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쟁점 사항들을
빈번히 결정했다. 서기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신회의 본질에
관해 결정하기 위해 (현재 터기에
있는)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소집했다. 하나님이란 한 분인지
아니면 세 분인지에 관해 격론이
있었고, 공의회는 신회에
관한 이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버지, 아들, 성신이
각기 다른 세 존재이며, 그들이
별도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진리가
사라졌다.

모로니아는 니파이인
국가의 배도에 관해
말했다.



서기 400~4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박해의
시기에 중지부를 찍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한 이유는 아직도
불가사의하다. 일부 출처에
따르면 그가 전쟁 동안에
받았던 시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 이유가
어떠하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사랑 받는 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사망했으며, 그
후로 사도들이 충원되지 않았다.
거룩한 신권의 열쇠와 권능은
교회 지도자들의 사망과 함께
사라졌다. 이런 권능이 없이는
새로운 계시, 교리 또는 경전이
올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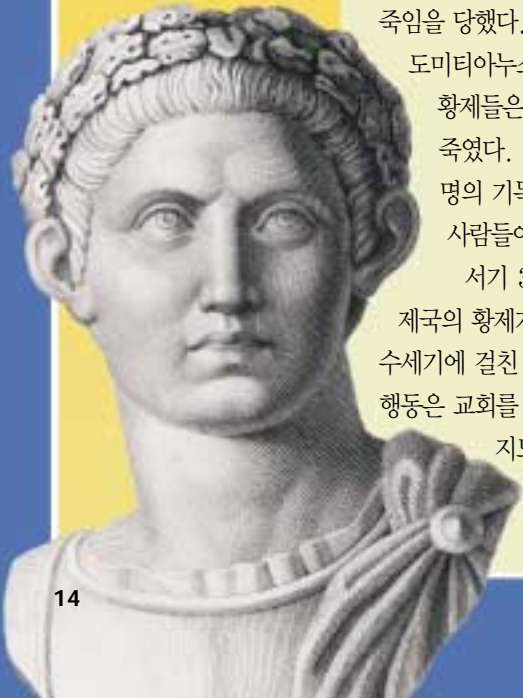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들은 전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동안에
죽임을 당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서기 65년경
기독교인들을 근절시키는 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었다. 그의 통치 아래 수천 명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다른 박해가 서기 93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권기에 시작되었다. 후임
황제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여러 차례의 이런 박해 결과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다.
서기 324년경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그는 기독교를 합법화하여
수세기에 걸친 박해에 중지부를 찍었다. 그의
행동은 교회를 정부와 연결시켰으며,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교회 안의 교사들은 그리스

철학과 이교도들로부터 그릇된
종교적 개념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릇된 의식과
의례들이 또한 도입되었다. 비록
교회가 여전히 몇몇 진리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신권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독교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대륙을 포함하여 세상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가자, 새로운 교회들이

그릇된 관습들

배도 동안에 많은 의식들이 적절한 권능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되었다. 교회는 유아 침례 그리고 침수 대신에 물 뿌림
또는 물 부음에 의한 침례를 허용했다. 향을 태움, 성직
독신주의(결혼하지 않는 성직자), 육신은 악하고 하나님은 육신이
없다는 믿음과 같은 이교도의 영향과 그 시대의 철학이 교회로
스며들어 왔다. 순교자를 기리는 것이 미신과 숭배로 변모되었다.
교회 안에 있던 사악함 때문에 영의 은사가 그치고 사람들은 참된
영적인 은사를 부인하기 시작했다. 계시를 받지 못하는 교회 조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을 통하지 않고 인간의 다스림을 통해
변질되었다. 교회 직분을 사고 팔고, 투표로 결정했다.



조판 활자로 인쇄
경전을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서기 1450년

종교 개혁가들은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도왔다.



서기 1500~1600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



서기 1820년

신권 권능이 회복되고
교회가 조직되었다.



서기 1829~1830년

형성되고 성장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지상에서 신권 권능과 신권 열쇠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 가운데 어느 교회도 참된 교회는 없었다.

경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유대 백성에게서 온 경전에서 간결하고 진귀한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갔음을 물문경을 통해 알고 있다. (니파이일서 13:23~29 참조) 신앙개조 제8조에는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고 씌어져 있다.

배도의 시기 동안에 진귀한 교리가 부주의, 영감 받지 않은 번역, 또는 진리를 삭제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를 통해 성경에서 사라졌다. 이에 따라 사라진 교리와 진리의 회복이 필요했다. 물문경 및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다른 경전은 복음의 그러한 간결하고 진귀한 많은 부분을 다시 가져다주었다.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

주님은 대배도가 일어날 것을 아셨다. (테살로니가후서 2:3 참조) 그분은 그분의 복음이 회복될 방법을 준비하셨다. 1820년의 첫 번째 시현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 동안,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조판 활자라는 새로이 개발된 인쇄술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교회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읽었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순교당했다. 그러나 그 시기 동안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본 남용과 악에 대항해 싸우게 하셨다. 이 시기를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라 부른다. 종교 개혁은 결국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과 진리를 지상에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또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시기 위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신권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지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27편; 65편; 128:18~21 참조)

우리는 축복을 받아 복음이 충만한 형태로 회복된 이 시대, 즉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

서반구에서의 배도

물문경에서 우리는 미대륙에 있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기 400년경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니파이인 세 제자는 니파이 백성들 가운데서 거두어졌다. 모로나이가 홀로 남겨져 그의 백성의 멸망을 전했다. (몰몬서 8:3, 10~11; 모로나이서 1:2 참조)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일곱 가지 교훈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
알 김 가족
톰 존스와 수 존스
프랭크 앤더슨
은행 직원
스미스 가족

해야 할 일
목요일 저녁 식사에
이웃들을 초대한다
금요일 밤 연극에 통과
수를 데려간다
스미스 가족을 다음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프랭크와 폴프 치러커

토요일 오전 10시에
을슨이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것 도와
주기. 제프가 도와 줄
수 있을까?

자니를 위해 은행에
선교사 기금을 위한
저축 계좌 만들어 주기

스미스에게 다시 전화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라모스 가족을
선교사와 함께
하는 가정의 밤에
초대한다.

금요일에 연극 표
찾는 것 기억하기



클레이튼 엠 크리스텐슨 장로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북미 북동지역

크리스틴 퀸 크리스텐슨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들을
찾는 일은, 우리가 그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실행한다면, 쉽고 자연스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구 세주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몇 안 되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마태복음 28:19)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책임이 과중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제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 ‘이런, 그건 불가능해! 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우리는 단순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¹

복음을 나누는 능력은 몇몇 말일성도에게만 주어지고 나머지에겐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실행한다면, 선교사들에게 가르칠 사람들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고 자연스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그분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일곱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물몬들”과 “깊은 우정”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초기에 우리가 알게 된 첫 두 가지 교훈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일을 훨씬 쉽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복음에 관심을 가질지 가리지 않을지를 단순히 예측할 수 없으며, 우정을 쌓는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우도록 권유하는 것에 있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신혼 부부였을 때 우리는 와드의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때 이 원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명단 맨 위에 적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열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다음에는 문화 행사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및 여덟 번째 단계는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물문경을 주며, 그들에게 선교사 토론을 들어 보도록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열두 번째 단계인 침례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이 명단을 만들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사람들을 명단 맨 위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삶, 가족에 대한 충실함과 같은 우리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이상적인 물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후 바쁜 우리 생활에 친목 행사들을 추가했고, 그들과 좀더 깊은 우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단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우리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권유가 그들의 기본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에 대한 현재 그들의 접근 방식에 만족한다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는 복음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후 새로운 선교사들이 우리 와드에 왔습니다. 그들은 그간 우리가 한 일을 전혀 모르고 우리 집에 와서 동일한 계획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으며,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기 전 준비 단계로, 우리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해보았어요. 그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열성을 다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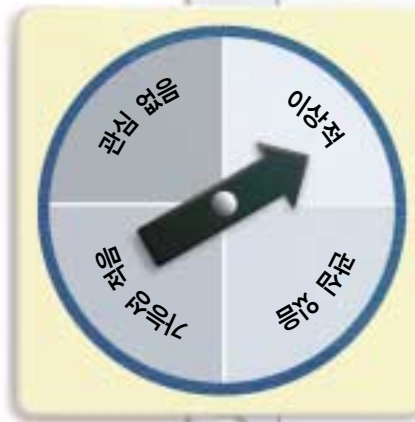
구도자 소개가 절실히 필요했던 선교사들은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초기 명단에서 제외시켰던 네 부부의 성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 테일러 부부가 있었습니다.(이름을 변경했음) 우리는 장로들이 테일러 부부의 집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켄은 모든 종교 조직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거친 럭비 선수였고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나중에, 장로들은 신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테일러 부부는 그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했고 첫 번째 토론을 들었으며, 다시 와서 두 번째 토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테일러

부부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으며, 선교사 토론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해 배우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질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나, 습관, 외모가 부적절해 보이는 후보자들은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처음 교회를 알게 되었을 당시의 그들 중에는 우리가 만든 "회원이 될 것 같은 사람" 명단에 오를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앨마서 32:2~3) 복음에 따라 살면서 그들은 변화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 않고, 구세주를 따르도록 그들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첫 두 교훈은 복음 나누는 일을 훨씬 쉽게 한다.

1 우리는 누가 복음에 관심을 가질지, 가지지 않을지를 단순히 예측할 수 없다.

2 우정을 쌓은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우도록 권유하는 것에 있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우도록 권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더 깊은 우정으로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웃, 학급 동료, 직장 동료, 가게 점원, 같은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이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임 선교사들은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신뢰 관계는 그들이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될 때 쌓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관계의 깊이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 간에는 아무 상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항상 사실입니다. 권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침례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더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우리의 권유를 거절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도록 그들에게 권유하는 데 있어, 그들이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감정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이고 중요한 어떤 것을 나누고 싶어할 만큼 그들에게 신경을 써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교사를 신뢰함

우리는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서 제 남편인 클레이튼의 동료인 잭을 가르칠 때 세 번째 교훈을 얻었습니다. 후임 장로는 이제 막 선교사로 나왔고, 아르헨티나에서 온 그의 선임 동반자는 아직도 영어 때문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질문이 생길 때마다, 잭은 본능적으로 클레이튼에게 질문을 했고, 클레이튼은 자신이 이 장로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장로들이 개념을 가르치면 잭이 질문하고, 클레이튼이 거기에 대답을 하고 나면 다시 장로들이 다음 개념을 가르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잭은 클레이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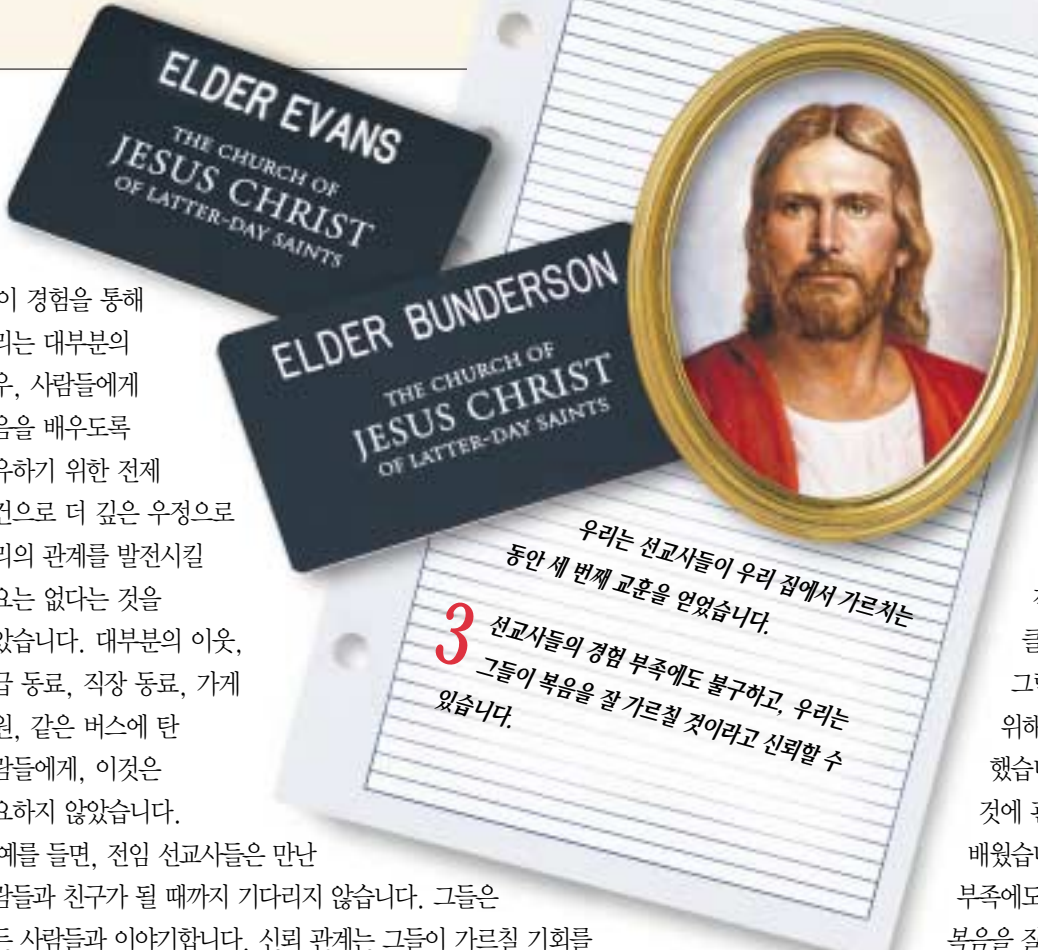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클레이튼이 잠시 머뭇거리자, 아르헨티나에서 온 장로는 영에 의해 아주 심오한 대답을 했습니다. 잭이 다음 질문을 했을 때, 클레이튼은 이 장로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기다렸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선교사들의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잘 가르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통찰력은 클레이튼이 가정 복음 교육 대상 회원인 한 연로한 자매님의 집 지하실에서 낡고 오래된 냉장고를 훑었을 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 줄 와드의 또 다른 회원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했던 우리는 이웃의 비회원인 짐에게 부탁을 했고 그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날은 매우 덥고 몹시 습도가 높은 여름 날이어서, 우리의 옷은 곧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우리가 계단의 첫 번째 모퉁이에 도달해 냉장고를 받듯이 내려놓았을 때, 짐이 말했습니다. “그럼 물론 교회에 대해 좀 얘기해 주세요.”

이마를 훑치며, 클레이튼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후 그는 가정 복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이 자매님이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지역에서는 대학원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항상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자주 누군가가 트럭에서 짐을 내리거나 싣는 일을 도와 준다고 말했습니다.

짐은 믿기 어려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설교를 듣기만 해요, 그리고 집으로 가죠. 누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요청 받은 적도 없고, 도움을 제공할 방법도 없어요. 일손이 더 필요하시면 또 부탁해 주시겠어요? 전 이런 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과거에 클레이튼은 짐이 교회에 관한 토론을 듣도록 노력했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했고, 짐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많은 사람들은 봉사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교회에 대해 알아보라고 권유할 때, 우리가 교리를 강조한다면, 우리는 종종 그들이 처음에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그들을 연계시킬 때, 그들은 종종 교회가 중요한 의무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우리 일을 돕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느낌들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종종 그제서야 무언가가 자신들의 삶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움으로써, 대화를 통해서나 와드 행사에 참석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보다 교회에 대해 훨씬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짐은 그 이후 선교사 토론을 들어 보라는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진리와 선을 보았음에도, 짐은 세 번째 토론 후에 공부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 대해 공부하는 일을 중단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복음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일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에게 회원 선교 사업에 관한 다섯 번째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교사로서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짐은 우리의 훌륭한 친구가 되었고, 우리는 그에게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침례의 물 속으로 들어가든 그렇지 않든, 그는 그 자신의 영원한 진보의 길에서 한 발자국을 내딛었으며, 몇 가지 중요하고 옳은 선택들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회원 선교사로서 성공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자, 사람들에게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이도록 권유할 때, 복음을 나누는 데 방해가 되었던

대부분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최종 기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의 권고에 따르면 우리는 여섯 번째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쁜 생활에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종 기한이 필요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특정한 시간까지 끝내야 할 일들은 마치게 되지만,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활동들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확한 최종 기한이 없이는, 선교 사업과 같은 영원한 중요성을 띠는 가치 있는 일도 쉽게 연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벨라드 장로님은 정기적으로 “날짜를 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성명을 적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분명하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보다도, 벨라드 장로님은 주님께 드리는 약속으로서 날짜를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해 말할 모든 기회를 찾는다면, 주님은 그 날짜까지 선교사를 만나 보라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네 번째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4 교회에서의 우리 일을 돕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일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장로님은 약속하셨습니다.² 우리는 함께 벨라드 장로님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매년 선교사가 가르칠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짜를 정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가르칠 사람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사람들 중에 쉽게 찾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매일의 기도와, 자주 드리는 금식, 복음에 관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드는 일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교회 활동, 선교 사업을 하는 우리 아이들, 교회의 임무 지명을 통해 배웠던 경험 등을 설명하는 “몰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문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안으로 들어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관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에

답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여겨지면, 두 번째 문을 열어, 그들을 교회 모임에 초대하거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권유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절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느낀다면, 자신들을 초대할 만큼 신경을 써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남편은 1월 31일이라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1월 초가 되었고, 수십 명의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 중 몇몇에게 선교사를 만나도록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1월 20일에 열리는 학술 대회 참석차, 남편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정표를 볼 때, 하와이로 가거나 올 때 탈 비행기 안에서 선교사에게 소개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그의 권유를 받아들일 누군가가 옆 자리에 앉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는 옆 좌석에 탄 사람을 보았을 때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니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요란한 하와이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가슴까지 단추를 풀어 헤치고, 털이 복실복실한 그의 가슴에서는 금 목걸이 세 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니는 자신이 매년 열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며, 그 돈으로 겨울 한 달을 하와이에서 보내면서 여자들의 꽃무늬를 따라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튼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누군가를 찾게 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 왔건만, 종교적인 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한 남자의 옆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낙담한 클레이튼은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이 점심을 가져왔을 때, 클레이튼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옆에 앉은 남자와 별 의미 없는 대화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비니는 클레이튼에게 하와이에 가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클레이튼은 자기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 한국에서 봉사하기 위해 가는 도중 라이에에 있는 언어 교육 훈련원에 다녔다고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비니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당신이 몰몬이란 말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저한테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종교에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몰몬에 대해 알고 싶은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성공을 확인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일도록 권유할 때 우리는 선교사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6 바쁜 생활에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최종 기한이 필요합니다.

권유



얘기해 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세 시간 동안, 놀라운 영에 둘러싸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 개조의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은 비행 시간 동안 비니는 이야기 도중 몇 번이나, 교회에 대해 말해 주어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클레이튼은 비니에게 그의 고향에 선교사들이 있다고 말해 주고, 그가 돌아올 때 선교사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비니는 선교사들이 호놀룰루에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클레이튼은 “몰론” 용어를 사용하여 대화의 문을 열고, 비니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므로써 자신의 기도에 대한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상수와 변수

우리는 이 경험에서 일곱 번째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바쁘게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니파이일서 3:7 참조)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등식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상수이지 변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유일한 변수는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고 기적을 기대할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원들보다도 더, 우리 와드와 스테이크(혹은 지부와 지방부)를 이끄는 바쁜 형제들과 자매들이 이 단순한 신앙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현재 시제와 1인칭 화법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들은 회원 선교 사업을 하라는 우리 예언자의 부름을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도록 그들을 고무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선교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아주 쉽게 복음을 나누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 일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일을 불편해

하고 겁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들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매우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에게 온 축복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선교 사업은 우리 가정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약 4년

전에 남편의 옛 제자인 선일 군을 집에 초대해서 선교사 토론을 듣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아주 훌륭하게 가르쳤고, 토론의 끝 부분에 두 선교사는 가르친 진리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우리 부부도 간증을 했고, 남편은 선교사 중 한 명에게 폐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로 그 때 우리 아들 스펜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빠, 저도 얘기해도 돼요?” 그런 후 그 아이는 일어서서 가장 순수한 눈빛으로 선일 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일이 형, 저는 겨우 열한 살이지만 오늘 밤 선교사들이 말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형과 제가 그분의 아들이고 요셉 스미스가 진실로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아요.” 아들이 자신의 느낌을 나누었을 때, 달콤하고 강력한 영이 방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선일 군은 토론에서 우리 가족과 선교사들이 전해 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 감사하다는 이메일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일어서서 그 말들을 했을 때, 저는 전에는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무언가를 가슴에 느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나누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축복과 우정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축복이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선교사들과 함께 성신의 권세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오래된 친구들에게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다섯 자녀들의 신앙은 큰 영향을 받았으며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었습니다. ■

주

1. “The Redemption of the Dead”, *Ensign*, 1975년 1월호, 97쪽.
2. “Write Down a Date”, *Ensign*, 1984년 11월호, 15~17쪽 참조; 또한 “We Proclaim the Gospel”, *Ensign*, 1986년 11월호, 31~33쪽 참조.

일곱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 나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응 답

저는 복음을 사랑하지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

가장 훌륭한 회원 선교사들조차도 때때로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바로 자신의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격려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이사야 41:13)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 부끄러워하지 말고”(디모데후서 1:7~8 참조)

두려움을 권세와 사랑으로 대체해 주는 그런 신앙을 키우는 데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신앙이 생기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간증을 나눌 작은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편지에 간증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주일 동안 매일매일 자신의 일지에 간증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은 신앙을
키움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을 실행해
보십시오.

지식을 더 쌓아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십시오.
준비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의로운 소망을 쌓아가면서
두려움을 정복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간증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면, 성찬식 시간, 가정의 밤,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그 간증을 전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증을 나누는 기술을 쌓을 때, 여러분의 자신감과 신앙도 자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면, 약간의 준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이람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러한 연후에야야 네가 원하면 나의 영과 나의 말 곧 인간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21)

경전과 그 밖의 다른 교회 자료들을 읽음으로써 복음에 대한 지식을 쌓으십시오. 소책자, 잡지 등등의 자료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Mormon.org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사이트입니다. 용기를 더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누군가에게 물어 보거나,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의



강도는 개인적인 개종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쪽) 여러분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소망을 행동으로 옮겨서 복음을 나누는 일을 실행해 봅시다. (엘마서 32장 참조)

독자들의 대답



여러분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토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나눌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길 원하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비키 햄, 17세, 미주리 스프링필드
남 스테이크 마운틴 홀 와드



저는 복음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항상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간증과,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얻게 되는 훌륭한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게 되고, 몇 번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나 질 바텔, 16세, 독일
뒤셀도르프 스테이크 본 와드

세미나리 시간을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니파이삼서 12장 13~16절을 읽고 제가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 되어야 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진 게리 길렛, 17세,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스테이크
까르푸 와드

이 위대한 사업에 대해 느끼는 사랑으로 인해 저는 복음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경전을 읽으며,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성신의 인도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말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시저 에이 플로레스 바리오스, 15세,
베네수엘라 엘 티그레 스테이크 칸타우라 와드



만일 여러분이 친한 친구에게 말하려고
한다면, 더 편안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설명하기 쉬운 복음 표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말하는 것이
더욱 쉬울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한 친구에게 말하고 나면,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레첸 스킬러메트, 14세, 뉴햄프셔 콩코드 스테이크 킨 와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중요합니다. 제가 훌륭한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들을
못 본 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요리법을 읽어 보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같이 먹자고 말할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엠 해로프, 16세,
알래스카 워싱턴 스테이크 팔머 제3와드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영이 저를 인도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 때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이 여러분을 도와 줄 것입니다.

앰버 윌슨, 14세, 버지니아 찰스턴 웨스트 스테이크
파커스버그 와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이 복음을 더 빨리 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저의 바람을 생각해 봅니다. 제
친구들과 가족들도 그것을 긴급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는 활동들과 복음이 가져오는 기쁨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과
신앙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 원할 것입니다.

에빌라 페르난다 데 캄포스, 19세,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악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적은 여러분이 노력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두려움을 던져 버리고
진리와 의와 신앙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으로
여러분 생활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지금 결심을
한다면 그 결심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리아호나,
1998년 6월호, 26쪽.

리아호나와 독자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브라질 이타티바 스테이크 브라간사 파울리스타 와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요한1서 4:18)
온전한 사랑의 은사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미소를 짓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복음의 축복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토모히코 후나이 장로, 19세, 아이다호 포카텔로 선교부



우리는 친구가 됨으로써 초기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간증을 하게 되고,
성신은 그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앤 디니즈, 16세, 브라질 랑헬 조아우 페소아 스테이크
발렌티나 와드



다른 사람들과 용감하게 복음을 나누려면 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지침으로 사용하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론 미켈슨, 13세, 코네티컷 뉴 헤이븐 스테이크
사우스버리 와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성명, 나이,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혹은 지부와 지방부) 명칭, 사진 등과
함께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 Answers 3/05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cur-liahona-imag@ldschurch.org

2005년 3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질문

제 친구는 자신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교회에서 환영 받는다고 느끼도록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

신화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을 기뻐하며

기 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요셉 스미스서 2:17: “나는 ...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 ... 을 보았습니다. ... 그 중의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신화의 성격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의 이름으로 결혼했습니다. 이 분들의 실재성과 개체성에 관하여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 기적 중의 기적이요, 기이한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들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그분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것처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위대하고도 탁월한 진리에 대해 간증드리거니와 이는 성신의 은사와 권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신”, 성도의 빛, 1998년 3월호, 8~9쪽)

엘 톨 페리, 십이사도 정원회: “[요셉 스미스의 경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과 성신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에게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즉 세상에 시현이 주어졌으며, 이 시현을 통해 우주를 관장하시는, 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 분은 육체적으로 서로 구별된 개체로서 인간들에게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신은 영으로서 하나의 개체입니다. 성신은 신화의 다른 개체들에 대해 증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증인으로서 그분들의 속성을 인간들에게 알려 줍니다.”(“신앙개조”,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23쪽)

신화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우리를 그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가?

제프리 알 홀런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님[이]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 또 모든 시대와 나라에 걸쳐 그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헌신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에서 그분의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당시나 현재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분께 더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을 보다 완전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쪽)

앤 시 핑그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성약을 맺은 말일성도 여성들로서 우리 모두는 신화 구성원들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하는 성신의 속삭임과 동반을 느끼는 것은 이 고통으로 가득찬 시대[위험한 시기]에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더서 12:41: “예수께 이를 구하여 ...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이 영원토록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와 더불어 함께하시게 하라.” ■



선생님을 가르침

프린스 아이헨코로

몇 년 전에, 우리 지부의 청소년들과 나는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기다리며 인적이 드문 길가에 서 있었다. 마침내 차 한

대가 오는 것이 보였다. 이윽고 그 차가 멈추어 섰는데 운전자는 예전에 나를 가르치셨던 에네모르 선생님이셨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다. 만면에 웃음을 띠시고, 선생님은 “아이헨코로,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는 걸.” 하며 기뻐하셨다.

그 분이 차를 세운 것은 기적 같았다.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한 대의 차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차비도 들지 않게 되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에네모르 선생님은 “모두들 어디를 다녀 오는 게냐?”라고 물으셨다.

나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오는 중이에요.”라고 대답했다.

“그래, 잘했구나, 나는 모든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이 나라가 잘 될 게다.” 그런 후 선생님은 다시 물으셨다. “어느 교회를 다니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녀요.” 나는 선생님께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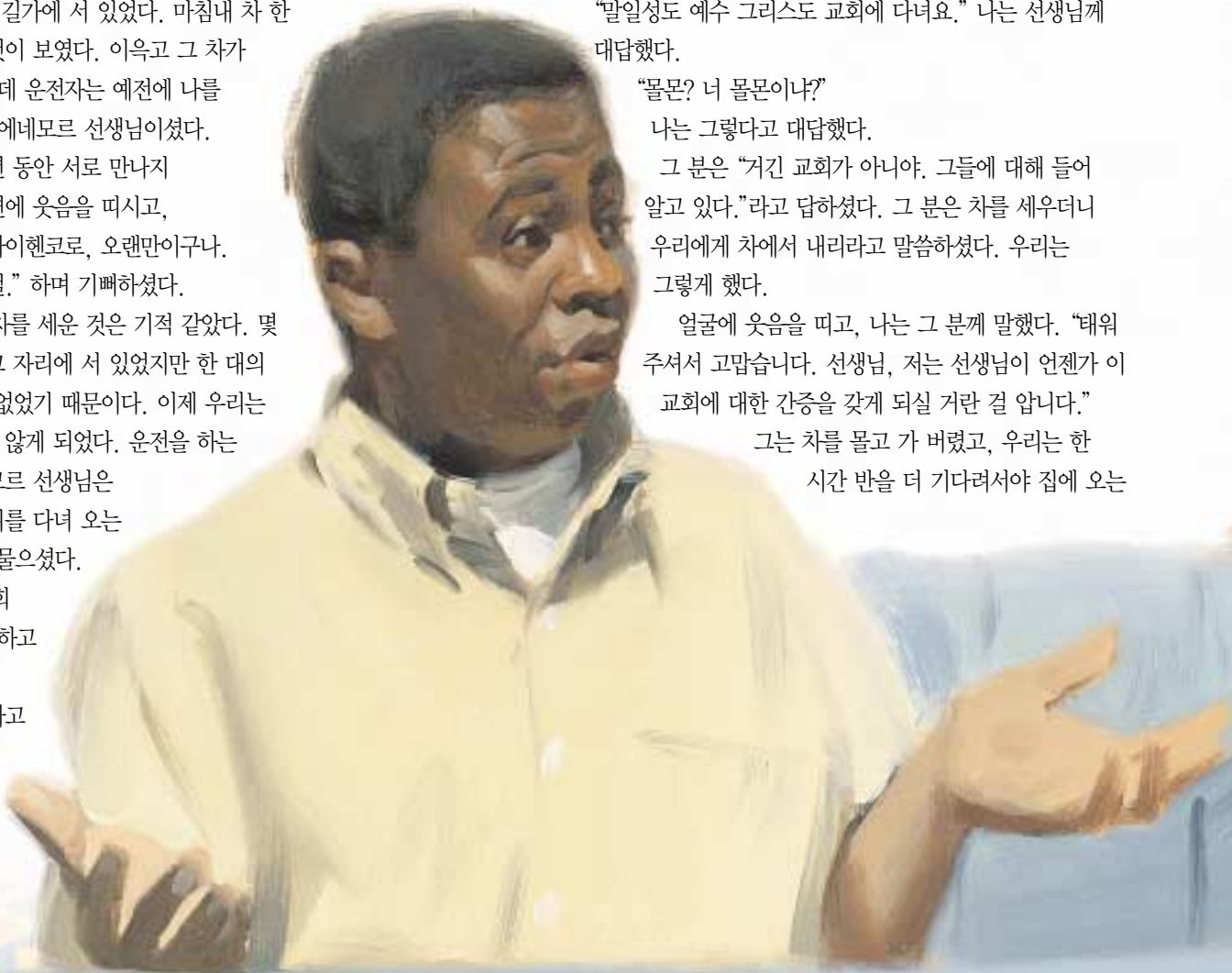
“물론? 너 물론이냐?”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분은 “거긴 교회가 아니야. 그들에 대해 들어 알고 있다.”라고 답하셨다. 그 분은 차를 세우더니 우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나는 그 분께 말했다. “태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언젠가 이 교회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실 거란 걸 압니다.”

그는 차를 몰고 가 버렸고, 우리는 한 시간 반을 더 기다려서야 집에 오는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나는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귀중한 어떤 것을 얻으려면 우리 모두는 값을 치러야 한다.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 죄를 위해 값을 치르심으로써 그것을 보여 주셨다.

나는 에네모르 선생님과 복음을 나누고 싶었기에 그분의 집으로 갔다. 선생님은 결코 나를 들어오게 하지 않으셨으나, 나는 교회 소책자 몇 권과 교회 잡지를 그분을 위해 내려놓고 왔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에서 그 분은 이렇게 말하셨다. “내가 그 날 저녁 너에게 한 행동을 부디 용서해 주기 바란다. 너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모두 해야겠구나. 우리의 가족과 나는 이제 한때 내가 적대시했던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나는 이제

말일성도란다.”

에네모르 형제님과 그분의 가족은 나이지리아 아버지에 있는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들이다. 그와 그의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 받았다. 그 분은 지금도 나에게 편지를 쓰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어서 고맙다.”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을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의 빛을 줌으로써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나는 처음에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나를 쫓아냈던 누군가와 복음을 나누기 위해 작은 대가를 치르고, 커다란 보상으로 축복을 받았다.

■
프린스 아이헨코로는 가나 아크라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나는 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차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차에서 내려야만 했다. 그러나 그 결과 한 훌륭한 남자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찾게 되었다.





의의 길로 돌아옴: 외설물을 버림

로리 시 리드

주님은 외설물에 대한 습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이다.

외설물이 점점 대중의 인기를 얻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 될 것이 없는 재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의 파괴성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해 왔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셨다. “지상에 널리 퍼져 있어, 그것의 노예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반면, 몇몇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외설물의 끔찍하고 방대한 홍수로부터 멀리 떨어지십시오.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¹

비참하게도, 일부 사람들은 예언자의 권고를 멀리하고 이와 같은 외설물에 빠져 왔다. 그들은 외설물에 대한 습관이 다른 많은 중독처럼 극복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있다. 외설물에 대한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투하는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는 심리 요법 의사로서 나는 외설물을 성공적으로 끊은 사람들 사이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외설물의 사용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지침과 하나의 출발점을 주려는 의도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제를 인정함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문제의 범위를 극소화시킨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시편 32:5; 알마서 38:14; 39:13; 교리와 성약 5:28 참조) 이미 하나님 앞에 명백한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때 그러한 고백은 사실상 우리 자신의 정직성을 행사하는 것이다. 외설물에 관련된 문제는 또한 배우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외설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배우자에게 밝히는 것이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한다. 그러나 몇몇 연구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결혼 생활은 두 동반자가 기꺼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경우 그대로 유지됨을

외설물에 빠져 든 사람들은 그것이 이기심과 고립과 비밀을 키우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외설물에 관한 습관을 버릴 수가 있다.

지적하고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것이 두려워서 밝히기를 피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이 배우자의 반응과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비밀리에 유지하면서 그것에 계속 탐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관계는 외설물만큼 파괴적이 될 수 있으며 많은 배우자들이 어쨌든 결국엔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배우자들은 동반자가 문제를 고백하고 회복을 위해 격려를 요청하며 노력하면서 겸허하게 접근할 때 도움을 주고 싶어할 것이다.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얼마간 숨길 수 있다 해도 하나님께는 결코 숨지지 못한다. 야곱이 말한 바처럼 “주가 만물을 다 아시매 주께서 아시지 못할 일이 없”(니파이아서 9:20)는 것이다.

정직하게 말함으로써,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를 미리 쓰지 않아도 되고, 문제를 밝히는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많은 배우자들은 의심이 자신의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동반자가 비록 고통스럽지만 밝혀 주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직을 기초로 회개의 과정을 시작할 때 주님의 속죄는 죄의 짐을 없애 줄 수 있다. 또한 속죄를 통해 배우자는 자신의 성스러운 신뢰를 저버린 범법에 대해 용서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속죄를 받아들임

속죄란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카파, 즉 “덮는 것”을 뜻하는 동사다.² 그러므로 속죄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분의 자비를 통해 죄 “없이 함”에 의해 죄를 덮으실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사도행전 3:19 참조) 이 과정의 결과로서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질”(이사야 1:18)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적은 외설에 탐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숨기거나 덮어 두게 함으로써 회개의 과정을 방해하고 치유의 참된 근원을 피하도록 유혹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은 외설물의 죄에 부정적 죄를 보태게 되고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니파이아서 28:21)게 된다.

속

죄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들을
‘지워’ 버림으로써
그것들을 덮으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다.





외설물이란 무엇인가?

법률적, 학문적 및 그 밖의 외설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 외설물은 성적 자극을 의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시각적 또는 문자적인 매개체이다. 그 작품이 자극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개인에게 성적 자극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외설물이 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작품이 외설적이나 아니냐를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벌써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시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는 몸을 가리고 숨으라는 사탄에 의해 수치심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들이 실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아담에게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모세서 5:8)고 지시했다. 아담과 이브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신앙과 신뢰로 바꿀 것을 배웠다. 마찬가지로, 외설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개인들도 자신들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주님과 주님의 속죄에 대한 신앙과 신뢰로 바꾸어야 한다.

속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따르게 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부과한 죄나 수치심을 통해 스스로의 죄를 벌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구세주의 권능을 빼앗으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는 것이다. 구세주만이 자비를 베풀 권세도, 심판할 권세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치고 그분의 자비와 거룩한 율법에 따른 공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록 자비를 받을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써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불의로부터 성결케 되는 이 위대한 마음의 변화는 주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를 통해, 그분의 속죄의 권세에 의해 오는 은사이다. 이 과정을 통해 죄로부터 얻게 되는 구속은 대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엔 영이 우리의 영혼에 확신을 줄 때, 우리는 죄가 용서 받음을 알 수 있다.

인식함

베냐민 왕은 “너희 생각과 언동을 지”(모사이사서 4:30)키라고 현명하게 권고했다. 외설물에 대한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한 가지는

자신의 삶의 양식과 약점을 파악하고 외설물에 빠져 들게 하는 사건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외설물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새로운 자각의 결과로 그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억제할 힘을 주시길 간구하며 조용히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물론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그로 하여금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지 알게 해 주었다. 그는 엘마의 백성들이 속박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모사이사서 24:14 참조)에 주목했다. 그분은 그들의 짐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서 역시 주님께서 그의 삶에서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건강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각은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때, 특히 진정한 기도의 일부로 간구할 때 오게 된다.

조정함

외설물에 대한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수없이 조정해야 한다. 흔히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니파이일서 17:45; 모로나이서 9:20)지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다시 겸손하게 되어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성신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며, 그것은 “계속하여 선행을 해도록” 영향을 주는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해 줄 수 있다.(모사이사서 5:2; 엘마서 5:12, 14; 엘마서 5:26 참조)

도움은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서 올

수도 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1895~1985)은 주님은 그분의 의로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종종 다른 사람들을 쓰셨다고 가르쳤다.³ 감독이나 지부장, 가족 및 합당한 보좌들은 외설물에 대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도울 수 있다. 옛 속담처럼 주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자원들을 활용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필요한 조정에는 매일 지속적으로 경전 공부에 전념하는 습관이 포함된다. 위대한 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기쁘게 취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 앨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겹이나 그 밖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앨마서 31:5)친다고 가르친다. 이와 유사하게 니파이도 형제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굳게 지킬진대 멸망당하지 아니하며, 유혹이나 원수의 불길 같은 창도 이러한 자들을 사로잡아 눈멀게 하거나, 멸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니파이일서 15:24)고 말했다.

말씀의 권세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 경전 공부에서 익힌 원리들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주님은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따르는 데 필요한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에도 또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변화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단순히 외설물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한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외설물을 버리는 데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외설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는 데에만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히려 외설물을 보는 것과 공존할 수 없는 적극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다 정직하게 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스스로 정직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은 외설물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며, 그 결과 외설물에 대한 생각하게 되고 외설물을 더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그들의 유혹에 관해 정직하게 생각하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도했던 한 사람은 외설물 속에 있는

여자들이 실생활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보았던 그 이미지는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효과를 높인 것이며 현실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서 그는 알코올이나 마약에 탐닉되어 있는 배우들 중 일부가 감각이 마비되어 자신을 저속한 일에 개의치 않고 계속 참여시키고 있음을 발견했다. 외설물에 대한 그의 정직한 접근 방법과 원인을 알려는 노력으로 외설물의 매력은 뚜렷이 감소되었다. 그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크게 개발할 수 있었다.(창세기 3:5; 모세서 4:11 참조)

책임을 짊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었다.”, “난 알지 못했다.”, “그것을 알고 놀랐다.”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책임감이 있을 때,



회개: 죄를 씻는 과정

“사탄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우리를 확신시키려 하지만, 가장 부끄럽고 당혹한 순간에 죄를 폭로해 버립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매혹적인 유혹은 개인을 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그 분은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와 줄 사람에게로 인도될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씻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어렵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적과 화평 그리고 용서를 위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7쪽.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유혹을 덜 받도록 우리의 환경에 기꺼이 변화를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상의 외설물에 유혹 받는 어떤 사람은 그의 컴퓨터에 차단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문을 열어 놓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설치할 것에 동의할 수도 있다.⁴ 그 사람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혼자 있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될 것이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사무엘하 11:1)이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 그는 군대와 함께 있어야 했지만, 그 대신에 “옥상에서 거닐다기”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다.(사무엘하 11:2 참조) 그때 그는 육욕의 유혹에 빠지는 실수를 범했다. 이와 같이 외설물과 싸우는 자들은 타협할 여지가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피해야 한다.

행동을 버림

외설물에 관련된 습관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은 그 죄와 관련하여 자주 다루지 않는 한가지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죄와 욕망은 일시적인 쾌락을 가져다준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를 유혹할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헝클리 대관장은 외설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극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것은

외설물을 보는 것과 공존할 수 없는

적극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외설물에 관한 습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여러분을 파괴시킬 것입니다.”⁵라고 대관장은 말씀했다. 이 파괴는 수개월, 수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백성들의 사악함에 대해 고심하던 몰몬은 “주가 저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에게 행복을 용납치 아니하시매”(몰몬서 2:13)라고 말했다.

외설물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회개의 길을 걷는 가장 중요한 단계들 중 하나다.

그러나 회개란 마음과 생각의 변화이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기꺼이 근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근절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건전하고 의미 있는 결혼 관계에서 오는 영구적인 만족감으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로, 그리고 의로운 생활에서 오는 자기 존중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희망은 있다

만일 여러분이 외설물에 관련된 습관과 싸우고 있다면 거기엔 희망이 있다. 그것을 버리고 그 영향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과 힘과 인내가 요구될 것이다. 여러분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함께”(모사이야서 15:7)하게 될 때, 그 투쟁은 싸우는 대신 하나님께 굴복함으로써 이기는 투쟁이 될 것이다. 어떤 투쟁은 오직 여러분만이 아는 회복의 길에서 일어나는 작은 승리인, 영혼의 조용한 방에서 싸우는 투쟁일 수 있다.⁶ 외설물을 버리겠다는 소망은 여러분의 뜻을 하게 하는 의로운 노력이며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것이다. ■

로리 시 리드는 리하이 유타 조던 리버 스테이크 필그림스 랜딩 제3와드 회원이다.

주

1. “Selections from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2001년 3월호, 65쪽.
2. 러셀 엠 넬슨, “속죄”, *Ensign*, 1997년 1월호, 34쪽 참조.
3.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에드워드 엘 김볼 지음(1982년), 252쪽.
4. 엠 러셀 벨라드, “우리의 음성이 들리도록 합시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6~19쪽 참조.
5. “청소년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6쪽.
6. 에즈라 테프트 벤슨, *성도의 벗*, 1989년 2월호, 3쪽.

이 주제에 관한 참조: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설물의 함정을 피함”,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12~17쪽; 토마스 에스 몬슨, “외설물-치명적인 매개체”,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2~5쪽.



가족을 강화함

완전을 향한 우리의 발전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연구하고
활용하도록 통찰의 기회를 주는 연재 기사.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해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하면서 완전을 향해 진보하고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의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영속되게 한다.”¹

전세가 열쇠임

지상에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살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세의 교리를



알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분과 같이 영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 이생은 시험의 기간이며, 삶은 탄생으로 시작되기도,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모든 혼동된 해악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갖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²

육체의 축복

전세에서 우리는 지상에 와서 육체를 얻고 경험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뻐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살고 계시는 종류의 삶, 즉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인봉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찾아 그들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대리로 인봉의 권세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

유일한 길임을 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1876~1972)은 이렇게 설명했다. “성약에 의해 인간의 영들, 곧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 특권보다 더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가장 큰 형벌이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육신을 입을 특권이 영원히 거부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저주였습니다. 이러한 영들은 발전도 없으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영들은 살을 가진 육체와 빠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육신과 영은 부활을 통해 불멸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출생을 통해 이 지상에 오는 것과 부활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영들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같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³

신앙으로 행함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 중 일부가 육신을 입고 나서 곧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 곧 신앙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고, 시련과 시험을 받기 위해 이 지상에 온다.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1897~1988)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의 영원한 발전에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지상 생활의 경험은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완전을 위해 우리는 전세의 집을 떠나 지상에 옵니다. 지상에 오는 과정 동안 장막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며 전세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차단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선택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선과 악 사이에 우리를 놓으시고, … 신앙으로 행하며,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아브라함서 3:25) 행함으로써 우리의 높은 가능성에 이를지, 아닐지를 증명하게 하셨습니다”⁴

영원한 가족 관계

우리의 영원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에 관해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이상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생을 상속 받은 자들은 부부가 신권의 권세에 의해 인봉되고 무덤 너머까지 지속되는 관계를 향유할 때 높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똑같은 사권이 하늘에서도 있으리니, 다른 것은 다만 그 곳에서 우리가 지금 향유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이 함께 따르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2) 가까운 친구와의 영원한 우정은 정말로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권은 신권 의식을 통해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인봉되는 가족 관계이다.

이 인봉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찾아 그들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대리로 인봉의 권세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 브리감 영 대관장(1801~1877)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지상의 여러 나라를 구속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조상들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신권에는 이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상에 살고 있는 가장 최근의 세대에서부터 우리의 시조 아담까지를 하나로 묶어, 구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왕국에 데려가기 위함입니다.”⁵

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우리는 전세와 그 곳에서 우리가 택한 선택에 대해 배웠으며,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을 알고 있고,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는 데 필요한 신권과 성전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 위대한 사업을 진척시킬 자원을 가지고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질문했다.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 하려느냐?”(교리와 성약 128:22)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 49쪽.
2. “인생의 신비”,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22쪽.
3. In Conference Report, 1965년 10월, 27~28쪽.
4. “Prayer Is the Key”, *Ensign*, 1976년 1월, 2쪽.
5.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310쪽.

우리가 등반해도 좋을까요?

마이클 티 리치

몇년 전에 나는 종교 교육원 친구들과 함께 이틀 동안의 배낭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는 야영 경험이 있었고, 여행할 지역도 꽤 친숙한 곳이었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잘 갖추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우리의 장비이자 지식인 성신의 안내 없이는 모두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하늘은 맑았고 기온도 적당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뉴 햄프셔의 화이트 마운틴 산맥의 처코러워 산이었다. 우리 지역의 산들이 다른 산만큼 높은 정상으로 유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상을 향해 오르는 가파른 길이 꽤 많고 또 뉴 잉글랜드는 예측할 수 없는 일기로도

우리 모두가 출발지에 도착한 후에 내가 염려했던 것에 대해 얘기했다. 내 걱정을 덜어 주듯 다른 두 친구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유명했다.

출발 전날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이킹할 때 비가 자주 왔으므로 통상적으로 그것은 걱정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일기 예보를 확인했다. 가벼운 소나기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저녁이 닥쳐올 때 나는 여전히 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잠자리를 준비하면서도, 경전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 갔다.

마침내 나는 배낭을 열어 화이트 마운틴 국유림의 지도를 꺼냈다. 내가 지도에서 처코러워 산의 위치를 보았을 때 나의 불안감은 배가 되었다. 그 느낌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는 여행을 취소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것 역시 옳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우리의 목록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등반할 다른 산을 발견했다. 그러자 즉시 기분이 좋아졌다. 기도 후, 나는 이 새로운 목적지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다. 나의 유일한 걱정은 친구인 글렌을 실망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여전히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출발지에 도착한 후에 나는 내가 염려했던 것과 기도와 느낌들에 대해 친구들에게 얘기했다. 나의 걱정을 덜어 주듯 다른 두 친구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글렌은 산을 바꾼 것에 대해 너무 기뻐했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며 여행 중에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해 주실 것을 간구드렸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했다.

비는 계속되었지만 차를 타거나 산을 오르는 일은 사고 없이 진행되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비가 그치고 구름이 비껴 가며 아름다운 석양이 드러났다. 우리의 영은 고조되었고, 우리는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우리는 강렬한 번개를 동반한 폭우 소리에 잠이 깨었다. 그것은 거의 그 날 밤 내내 계속되었다. 우리가 있던 곳에도 많은 비와 바람과 번개가 있었지만 우리는 절박한 위험을 느끼지 않았다. 번개는 내가 있는 유리한 위치에서 동쪽으로 훨씬 더 심하게 거의 매초마다 특정 지역을 강타하며 최소한 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내가 그쪽에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나는 다시 잠에 빠져 들었다. 나머지 여행도 비에 젖긴 했지만 안전하고 매우 즐거운 여행이었다.

며칠 후에 종교 교육원 야외 요리 파티에 참석했다. 배낭 여행에 함께 갔던 사람들이 모두 거기 있었다. 글렌이 얼굴에 호기심을 잔뜩 띠고 도착했다. 그는 화이트 마운틴의 안내 책자를 보여 주었다. 그 책자에 따르면 처코러워 산은 그 주변의 산들만큼 높지 않은 반면, 그 산의 가장 가파른 부분은 초목이 없는 바위 산으로 북미에서 번개가 가장 빈번히 내려치는 산 중의 하나로 위험 지역이라고 나와 있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본, 번개가 퍼붓던 지역이 바로 처코러워 지역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때에 우리가 거기 가지 않도록 성신이 경고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

마이클 티 리치는 프로비던스 로드 아일랜드 스테이크, 시츄에이트 와드 회원이다.

하스민과 안식일

마르셀라 콜라베라르디노 데 미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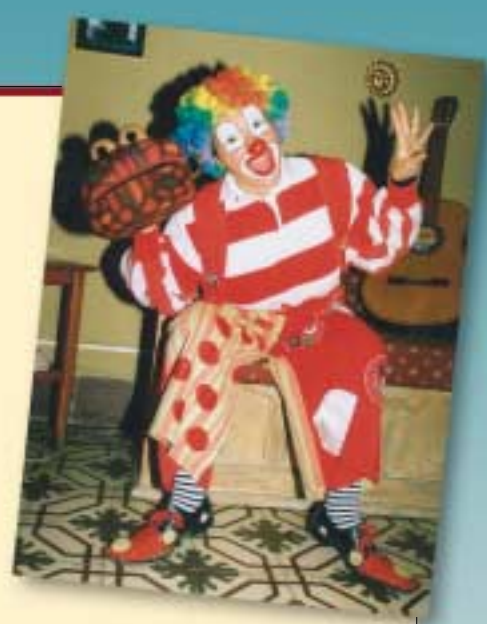
몇 달 전, 남편의 봉급이 갑자기 30퍼센트나 줄어들자 나는 가족의 생계비에 보탬이 될 만한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종종 생일 파티에 어릿광대처럼 옷을 입는다든가 게임을 준비하고 나의 두 자녀를 위해 인형극을 공연하기도 했는데 친척들은 이런 나를 보고 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축하 행사를 위한 직업으로 돌리지 않느냐고 질문하곤 했었다. 지금이 그들의 제언을 행동으로 옮길 적기인 것 같았다.

나는 지역 사업체들에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 뒤로 얼마 안 있어 어릿광대 하스민은 첫 직업을 갖게 되었다.

순조로운 시작은 아니었지만 처음 6개월 동안 내가 요청 받은 대부분의 파티들은 일요일에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어릿광대가 필요한 것 같았다. 나는 안식일에 결코 일하지 않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지만, 내게 일이 그토록 필요한 시기에 일을 거절하는 것은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번은 시 당국으로부터 어린이날 축하 행사를 도와 주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그것도 일요일 행사였다. 그 관리는 돈을 잘 치러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스스로의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 몇몇 친구들은 안식일에 열리는 행사에 대한 일을 맡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분이 안식일을 영광되게 하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점차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토요일과 주중에 일이 많이 있다. 나는 일부 고객들에게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파티를 바꾸자고 제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주중의 다른 날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서 성공 여부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이제 나는 우리가 기쁘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의 몫을 다하는 것을 주님께 보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 ■

마르셀라 콜라베라르디노 데 미티요는 리오 쿠아르토 아르헨티나 스테이크 로케 사에네스 페냐 와드 회원이다.

“예기치 않았던” 만남

익명

래 청한 남 캘리포니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잿빛의 비 내리는 날이었다. 남편과 나는 많은 사람들로 넘친, 우리 스테이크 성전 방문일의 엔다우먼트 의식을 막 끝냈다. 남편은 내가 성전 문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차를 가지러 빗속을 뛰어갔다.

우리 워드 회원인 한 회원과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한 자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흠뻑 젖어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주의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 놓은 채로 두었기 때문에 지금 차를 출발시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우리 스테이크가 아닌 곳에서 온 유일한 참여자로 성전 의식에서 우리를 보았으며, 배터리 충전 케이블을 빌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유심히 나를 보더니 마침내 이렇게 물었다. “너 캐시 웨스트 아니니?”(가명)

내가 놀라며 소리쳤다. “그건 내 처녀 때 이름인데!”

“나 다이앤 코디 하트야, 앤 코디는 내 여동생이고.”라고 그녀가 말했다.

앤 코디-그 이름이 번개처럼 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오랫동안 앤을 보지 못했다. 30년도 훨씬 지난 어린 시절, 앤은 내가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 준 나의 친구였다. 어머니와 언니들과 나는 교회 회원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녀가 차를 타고 떠나기 전에

다이앤과 나는 부드럽게 떨어지는 빗속에서 포옹했다.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었다. 우리 가족 중 활동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앤은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를 교회와 청년 모임에 데리고 갔으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한 결정적인 시기 동안 나는 복음에 대한 내 자신의 간증 때문이라기보다 앤의 우정으로 인해 활동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미약하지만 교회와 맺은 그러한 연결이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나를 지탱시켜 주었다. 그것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버지를 교회에 참석하게 하고 선교사 토론을 듣도록 권유하게 하는 영감을 주었다. 아버지가 교회에 들어오시고 우리 부모님이 다시 재결합할 때 교회와 맺은 결속은 강화되었다. 그 결속은 혼란스런 십대 시절, 나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

그 기간 내내 앤은 나의 친구이며 모범으로 남아 있었다. 앤이 브리감 영 대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나만 남겨지는 게 싫어서 나도 그 학교로 갔다. 그 시절 동안 훌륭한 친구들로 인해, 또 교회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참여함으로써 나의 간증은 무르익게 되었다.

2학년 때 우리 가족에게는 예기치 않던 비극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던 큰언니가 자살을 한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찾은 간증은 그 힘든 시절 내내 우리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 후에 나는 한 귀환 선교사를 만났고 성전 결혼을 계획했다. 나의 결혼 전날 부모님은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언니를 대신한 대리인의 도움으로 가족 인봉을 받았다. 앤의 조용한 영향력은 나쁜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도 성전의 축복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다이앤을 포옹하며 그녀 동생의 우정과 모범에 감사를 표했다. 차를 가지고 온 남편은 우리에게 배터리 충전 케이블이 없지만 다이앤이 케이블 세트를 살 수 있도록 근처 쇼핑몰까지 동행하기를 고집했다.

다이앤과 나는 남편이 케이블을 구하러 안으로 들어간 사이, 차 안에서 기다렸다. 나는 다이앤의 가족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 날 저녁 가족 모두가, 작년에 죽은 그녀의 남동생을 위한 거룩한 성전의 대리 의식이 집행되는 시간에 맞추어, 앤은 시카고에서, 다이앤은 샌디에이고에서, 그들의 부모님은 레노에서, 동시에 성전 의식에 참석했다고 대답했다. 다이앤은 그녀의 남편이 세 자녀들을 돌보는 동안 이 특별한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혼자 성전에 왔던 것이었다.

나는 다이앤의 손을 꼭 쥐며 그녀의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자기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자살했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을 흘리며 다이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남동생의 죽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고 얘기했다.

나는 그 날 저녁 우리 두 사람을 맺어 주신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었다. 자동차 지붕 위로 떨어지는 부드러운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래 전에 자살한 나의 언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에 대해 얘기했다. 잠시 후 남편이 케이블을 가지고 올 때까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해와 공감을 표했다.

우리는 성전으로 돌아왔고 남편이 다이앤의 차를 출발시켰다. 떠나기 전에 다이앤과 나는 부드럽게 떨어지는 빗속에서 포옹했다.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그녀가 속삭였다.

다이앤이 빗속으로 사라지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분은 위로가 필요한 그분의 딸 중 한 명을 만나도록 나를 데려다 주셨던 것이다. 그 위로를 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유일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분은 또한 사랑하는 한 친구가 30년 전에 내게 베푼 그 특별한 봉사를 작으나마 갚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셨다. ■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내게 봉사했던 분이였다

호세 살바도르 야네스 로페스

나는 1992년 2월, 온두라스 코마야구엘라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후에 나는 온두라스 산 페드로 솔라로 이사했다. 거기서, 선교사를 마치고 귀환한 지 불과 9일밖에 되지 않았던 아름다운 여성인 브렌다를 만났다. 몇 달 후에 우리는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에서 결혼했다.

온두라스의 페시트란 와드에서 가정을 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감독단



제1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신권 집행 위원회에서 감독은 와드 회원들 중 한 명인 피델 두론 형제가 스테이크 내의 다른 와드로 이사갈 것이라고 전해 주었다. 감독은 두론 형제가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서 그에게 감사하지 않을 와드 회원들은 없다고 말했다.

두론 형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이면, 그 일이 전기에 관한 문제이든, 건축 일이든, 파이프가 망가지거나, 이른 아침에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든 간에 누구라도 도왔다. 그의 봉사는 비단 교회 회원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지인들에게까지 확대됐다. 그는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감독은 우리에게 두론 형제에게 감사할 것이 있는 모든 회원들을 찾으라는 임무 지명을 주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비이기적인 봉사를 한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임이 계획되었다.

나는 혼잣말로 “나는 두론 형제에게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이 와드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와 얘기를 나눈 것도 몇 번 되지 않았었다. 그는 유쾌한 사람 같아 보였지만 그의 봉사 행위의 징표가 될 어떤 기회도 내게는 없었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나는 고등평의원으로 부름 받고 두론 형제가 새로이 나가는 로페스 아렐라노 와드로 지명을 받았다. 어느 일요일, 나는 이 와드의 주일학교에 참석했는데 교사가 봉사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달라고 반원들에게 부탁했다.

나는 우연히 아렐라 로사 데 산토스라는 자매의 원편에 앉게 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두론 형제가 자신의 가정 복음 교사로서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었던 자기와 가족에게 어떻게 봉사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절한 봉사가 필요한 시기에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었으며

그들의 삶을 축복했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그녀는 “두론 형제님, 만일 당신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여기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라며 얘기를 끝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렐라 자매의 딸인 수자파는 5년 전에 우리 집을 노크하던 선교사였다. 이제 나는 교회 회원이 되었고 나의 인생은 가장 풍요로운 축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선교 사업의 기회와 성전 의식을 받는 특권과 영원한 가족을 갖는 영광스런 소망도 가질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20년 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자신의 서약에 충실했던 한 겸손한 분이 내 영혼의 복지를 위해 남모르게 일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표현하기 힘든 기쁨과 나의

형제, 피델 두론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졌다. 나는 한때 두론 형제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나는 감독이 부탁했던 목록의 최우선 순위에 나 자신을 올릴 생각을 했다.

두론 형제를 위한 그 특별한 모임은 그가 잠시, 페시트란 와드로 돌아왔기 때문에 끝내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과 두론 형제가 나를 만나기 20년 전에 보여 준 사랑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

호세 살바도르 야네스 로페스는 페시트란 온두라스 스테이크 페시트란 와드 회원이다.

아델라 자매는 그녀의 가정 복음 교사의

친절한 봉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축복했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그녀는 “두론

형제님, 만일 당신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여기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죄는 죄입니다.
멀리 떨어지십시오.
(교리와 성약 50:3; 모세서 4:4 참조)



계시의 영

엠 곤잘로 세플베다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칠레 지역



만일 우리가 걱정되는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계시가 우리의 마음에
밀려올 것입니다.

오래 전,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언가 빠져 버린 것같이 불안정했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설마 친구 이마블의 “몰문을 만나 보라”는 권유가 이 의문들을 풀어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참으로, 이것이 저의 삶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마블과 함께 1974년 8월의 어느 일요일 교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회원들은—특히 젊은이들은—마치 오랜 친구처럼 너무도 반갑게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날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에 굳은 신앙을 가진 한 연사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제가 경험하게 된 따뜻한 느낌에 놀랐습니다.

이틀이 지나 저는 한 회원의 집에 가게 되었고,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행히 저의 가족은 깊은 종교적 전통과 두려움 때문에 선교사들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는 결과가 어떻든 스스로 진리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그것을

연구하고(교리와 성약 9:8 참조)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들이 첫 번째 시현에 대해 소개했을 때, 성령은 저에게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보았다고 강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니스 램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날, 선교사들은 저녁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몰문경이 참된지 간구해 보라는 조언을 주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평화롭고 기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주님이 선교사들을 통해 주신 새로운 삶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영”은 저의 정신과 마음을 밝혀 주었고(교리와 성약 6:15 참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팔을 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는 감미로운 사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곧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침례 받고 두 달 뒤, 저는 막내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칠레의 남부에서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선교 임지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침례 받으셨고, 귀환했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저의 형제 한 명과 여형제 두 명

또한 선교사로서 명예롭게 봉사했습니다. 또한 귀환하고 몇 달 뒤에 저는 사랑스러운 저의 아내 아드리아나를 만났고,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약의 자녀 세 명을 갖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제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회복된 교회에 대해 증거하는 조용한 속삭임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계시의 선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언가 빠져 버린 것같이 불안정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언자 요엘은 약 3,000년 전에 후세대에 대해 예언했고 계시에 대해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 영적인 기근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요엘 2:28)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에 위와 같은 경전 구절을 인용했고, 그 때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사도행전 2:17, 41 참조) 또한 모로나이 천사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했을 때 이것을 다시 선언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41 참조)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혼란, 폭력과 타락을 봅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은 부분적으로, 주님의 팔을 신뢰하지 않고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지혜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역대하 1:10)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우리에게 후하게 주어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계시를 통해 지혜를 간구했고, 그러한 결과로 그는 인류에게 엄청난 지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오는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조용한 속삭임과 느낌으로 옵니다. 만일 우리가 걱정되는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계시가 우리의 마음에 밀려올 것이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과 회개의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분이 우리를 “계시의 영”(교리와 성약 8:3)을 통해 인도해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두려움과 의심의 순간에도—그리고 우리의 삶은 축복 받을 것입니다. ■



교사 정원회

신권 정원회와 그 목적에 대한 연재 기사 시리즈의
두 번째 부분. 교사 정원회에 대한 감리 감독단의 말씀.



정원회는 개인들이, 특히 교사
정원회의 회원으로 있는 중요한 시기
동안,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위 중앙), 감리 감독: 우리의
젊은이들은 교회라는 환경에서 영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어느 청남이 교실 책상 주위에서든 토론회에서든
그의 친구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훈련은 젊은이들의 삶에

**어느 청남이 정원회의 다른 회원을 위해 그의 정원회 회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리처드 시 에즐리 감독(맨 왼쪽), 감리
감독단 제1보좌:** 청소년들이 아프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어떤 정원회의
회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소년들이 느껴야만 하는 우정을
쌓도록 도와 줍니다. 이들과처럼 젊은 청소년 시절에는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대부분 친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적인 경험을 함께할 수 있고 서로 힘이 되어 주고, 함께 진정한
형제애를 쌓아갈 수 있는 친구들을 정원회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버튼 감독: 고문이 정원회의 회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원회 회장이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은 또다른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교사로서 초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교리와
성약 20:53~55)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키스 비 맥멀린 감독(오른쪽 위), 감리 감독단 제2보좌: 제가
처음으로 가정 복음 교육 임무를 수행하러 갔을 때 저의 동반자는
서투른 영어를 하는 한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형제였습니다.
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 형제는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매우 모범적인 말일성도였으며 저의 선임 동반자였습니다.
제가 그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집에서는, 가족 기도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즉,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는 저를 통해 기도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가정 복음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고 기도는 가정 복음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야.”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 복음 교육이 훌륭하고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버튼 감독: 처음으로 가정 복음 교육 임무를 수행하러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척 겁이 났습니다. 저의 동반자는 저활동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였는데, 그는 신앙심 깊은 가정 복음 교사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명된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거세고 덩치 크며 조금 사나운 외모의 형제는 이 세상 누구보다 온유하고 유순했으며 언제나 가족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는—어린 교사였던—저에게 가정 복음 교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원회의 지도력에서 청소년이 맡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정원회에서 성인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에즐리 감독: 여러분은 감독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일은 그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권고를 좋아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고문들에게 “그들은 제사들에

헌신적인 동반자의 도움으로 한 교사는 가정 복음 교육이 중요하며, 기도가 가정 복음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일 어느 청남에게 정기적으로 가정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가 가는 길은 보통 바르고 참될 것입니다.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사들 모두 반드시 교사가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고문들에게 그들이 교사들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교사가 확실히 신권 소유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감독으로서 여러분은 “제가 그 신권 소유자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들 모두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교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이며, 그들이 강건히 견디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에즐리 감독: 이 나이 또래의 소년은 자신이 독립하길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어떤 것을 허락해 줄 것인지 시험하고 자신의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 정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친구들과, 올바른 환경에 있을 때에만 자유를 찾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맥멀린 감독: 형제들이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남일 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창이 열립니다. 보통 이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은 축복사의 축복문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또한 그들은 몰몬경에 대해 더욱 궁금해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버튼 감독: 뚝이 제자리에 잘 놓여 있으면 배는 옳은 길로 갈 것입니다. 만일 어떤 가족이 가정의 밤을 하는 오랜 전통을 키워 왔다면, 또는 비록 형식적으로라도 복음을 공부하거나 그저 단순히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해 왔다고 해도 그 활동은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부모들은 위의 세 가지를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훌륭한 보험 증권입니다. ■



신권회의 한 교사

파멜라 리드

대론 몰러 형제가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할보르스레이크 이스트 코스트 베이즈 와드로 이사를 왔을 때, 대론은 아론 신권 정원회의 교사인 스코트 코벳이라는 형제와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코트 코벳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당신보다 키가 큰 친구를 찾아 봐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곧 그를 찾을 수 있었어요.”라고 대론은 회상합니다.

스코트는 15세로 그가 속한 교사 정원회 회장단 보좌이며 물몬경에 나오는 그의 영웅 니파이와 같이 체격이 큼니다. 또한 니파이가 결심했던 것처럼 그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같은 반 친구들이 나쁜 행동을 하며 서로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그럴 때 저는 ‘내가 저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생각해요.”라고 스코트는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은 나쁘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의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나쁜 것들로부터 쉽게 피할 수 있어요.”

성찬식 준비를 책임지는 교사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스코트는 어느 일요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규모 큰 와드에 필요한 만큼의 성찬컵이 충분히 없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이 가법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라고 스코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교사들이 더욱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제 정원회 회장단은 성찬식 몇 시간 전에 미리 만나 회장단 모임을 함으로써 그 날과 다가올 몇 주간의 성찬식 준비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교회에서의 질서를 좋아해요. 질서가 있을 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스코트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가 되면서, 대론은 그가 자신의 부름에 대해 한 차원을 높여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맡은 가정을 100퍼센트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스코트는 어김없이 그것을 이루어 냅니다. 그는 제가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죠.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가정 복음 교육 임무를 수행하러 가서 가르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일찍 와서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들어 보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그의 말에 귀 기울이더군요.”

그러면 스코트는 가정 복음 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까요? “몰러 형제와 함께 가정 복음 교육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저 같은 또래의 두 명의 교사가 함께 가는 것이라면,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동반자가 있어서 다른 연령 그룹의 또다른 관점에 대해 듣게 됩니다. 가끔 몇몇 사람들에게조차 가르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여러분에게 닥쳐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저의 가르침을 들어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

파멜라 리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하버스레이크 발큰헤드 와드의 회원이다.



알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물문경의 영웅

내가 누구인지 알아 보려면 물문경을 읽어 보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있는 참조 사항에서 찾아 보십시오.

1. 나는 리하이의 후손입니다.
2. 나는 11살에 부친과 함께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남쪽의 도시로 갔습니다.
3. 내가 십대였을 때 끔찍한 전쟁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4. 나는 열다섯 살에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5.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제자입니다.
6. 나는 십대였을 때 나이에 비해 "몸집이 컸"습니다.
7. 열여섯 살 때부터 나는 백성들을 이끌고 많은 전쟁에 참여했으며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8. 나이가 들어서 나는 백성인 니파이인들에게, 레이맨인들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가르쳤으나,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9.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나는 백성들의 군대 지휘관을 사임했습니다.

10. 나는 근 1,000년 간의 나의 백성의 역사를 하나의 책으로 요약했습니다.

11. 지휘관으로서 일을 사임한 후에도, 나는 자진해서 군대로 돌아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12. 나는 아들과 떨어져 있게 되었을 때,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3. 나는 말일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권고의 글을 썼습니다.

14. 나는 나의 형제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 나는 레이맨인들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답을 위해 다음 구절들을 참조한다. 물문의 말씀 1:8; 니파이삼서 5:13, 20; 29~30장; 물문서 1:6, 8~12, 15~16; 2장; 3장; 5:1; 8:3; 모로나이서 8~9장.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됨

목표를 세울 때, 교회, 학교, 혹은 지역 사회에서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대중에게 말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더욱 조직적인 사람이 되고 활동의 진로를 잘 따라가거나 더 훌륭한 모범이 되도록 개인적인 의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적어 놓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적어도 주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영국에 있는 청년 독신성인

영국에 있는 청년 독신성인들은 잉글랜드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역대 최대 규모의 청년 대회에 다녀 온 뒤로 더 강하고 충실해졌다.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기타 지역에서 54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특별한 주말을 위해 모였다.

청년 독신들은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는 활동, 즉 기증된 의류의 선별 및 포장, 학교에 있는 칠판 250개를 새로 칠하는 일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을 도왔다. 그들은

또한 위든쇼에 있는 공원을 청소하기도 했다.

대회는 모두 일만 한 것은 아니었다. 독신들은 무용, 연극 등에 참여했으며, 당시 유럽 서 지역 회장단 제1보좌였던 칠십인 정원회의 더블류 크레이그 즈위크 장로를 포함하여, 여러 연사의 말씀을 들었다. 즈위크 장로는 좀더 강하고 충실한 회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 권고의 말씀을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여기 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11~12 참조)”





리아호나, 이해를 증진시키다

저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 작은 단체의 회장입니다. 그 단체는 우리 나라에 있는 서로 다른 종교간의 우정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말일성도들과 일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귀 교회의 회원 한 분 덕에, 저는 여러 해째 리아호나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는 것이 귀 교회 회원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며,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제가 깊은 감명을 받은 한 가지 기사는 휴 비 브라운 장로님의 "까치밥나무"였습니다.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2쪽 참조)

저는 또한 제임스 에이 토론토가 쓴 "마호메트에 대한 말일성도의 견해"라는 훌륭한 기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6월호, 30쪽 참조) 제 견해로 볼 때 이 기사는



다른 종교에서 언급한 진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온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 카르디날, 이탈리아 로마

어려운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힘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리아호나를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교회 회원이 된 이래로 삶의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이 잡지에서 저는 어려운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지침과 힘을 발견했습니다. 총관리 역원의 영감에 찬 메시지를 읽을 때 그것은 제 의무를 기억하도록 일깨워 주었습니다.(모사이아서 1:17 참조)

밀톤 오시엘 에스코바르 펠리코, 과테말라 산 펠리페 스테이크 누에보 팔마르 지부

친구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교회 회원은 물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훌륭한 출판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친구들 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매 호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중요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완벽한 보조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초등학교에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올가 로자노 데 곤잘레스, 멕시코 몬테레이 모테르나 스테이크 아즈테카 와드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리아호나에 있는 메시지는 인생의



목적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저의 안내자이며, 제가 영생에 이르는 곧고 좁은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니파이서서 31:18 참조)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를 읽는 일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예언자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 리아호나를 읽고 예언자의 권고에 따릅시다.

안드라 차몰라,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선교부 루푸타 지부

영적인 나침반

저는 2003년 1월호에 실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의 "주님의 길"을 읽고 큰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제 개인적인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 주는 살아 있는 예언자들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리아호나라는 영적인 나침반을 통해 훌륭한 도움을 주십니다.

호나단 산타크루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팔로 베르데 스테이크 라 타호나 와드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힝클리 대관장이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떠날 때, 그의 훌륭한 부친은 그에게 짙은 글이 적힌 카드를 건네주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36)

저는 주님의 사업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창 전쟁 중인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증오로 불타오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크게 염려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떠날 때, 훌륭한 제 부친은 제게 짙은 글이 적힌 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36)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14)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시사해 주셨던 한 가지 일을 기억합니다.

저는 남미에서 최근에 개종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찾은 복음에 대한 커다란 사랑으로 고무되어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에게 열성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침례

받은 지 불과 일곱 달 만에 그녀는 300명의 친지들을 선교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한꺼번에 60명이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희생을 요구하며, 노력을 요구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 주를 증언함과 ... 부끄러워하지 말라”(디모데후서 1:7~8)

저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성구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기를 바랍니다. 그 성구는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일 용기와 그것을 시도할 신앙을 갖게 해 줄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온 세상에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사업이 그분들의 거룩한 사업임을 압니다. ●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리아호나, 1996년 5월호, 2~7쪽.



인물 탐구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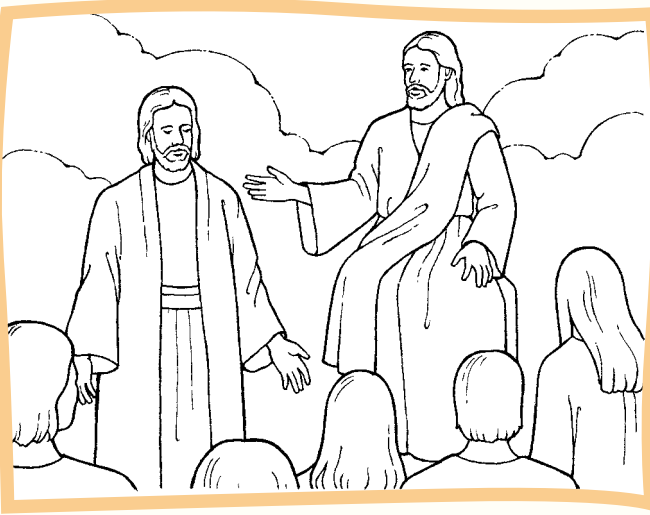
십 이사도 정원희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에 대해 좀더 알기 위해, 아래에 있는 힌트로 위에 철자가 붙은 그림을 맞춘다.

- ___ 1. 아들로는 다섯 번째, 자녀로는 열 번째로 패커 회장은 이 곳에서 태어났다.
- ___ 2. 그는 유년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비록 이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신앙, 간증 및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는 부유했다.
- ___ 3. 그는 그림과 동물 조각, 특히 이 날아다니는 창조물들을 조각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
- ___ 4.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이 일 가운데 하나를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
- ___ 5. 그는 1947년 7월 27일에 이 곳에서 도나 에디스 스미스와 결혼했다.
- ___ 6. 그의 아들이 조각한 이 힘센 동물은 그의 개척자 조상들의 신앙과 그의 가족이 구세주의 “명예”(마태복음 11:29~30 참조)를 지는 것을 상징한다.
- ___ 7. 그와 아내 도나 사이에는 10명의 자녀가 있다. 그들은 자녀들이 일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 ___ 8. 그는 이 물건들을 이용하여 세미나리를 가르쳤다.
- ___ 9. 성장한 아들 가운데 하나는 이른 아침 부모의 집에서 이것을 보고 부친이 이미 일어난 것을 알았다. 패커 회장은 글쓰기와 공부를 좋아한다.
- ___ 10. 그는 이것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이라고 불렀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위대한 교사의 제자”, 성도의 빛, 1987년 5월호, 10~15쪽 참조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다

유의 사항: 각 그림의 아래에 있는 글을 읽는다.
그런 다음 그림에 색칠을 한다. 이 글과 그림들을 가정의 밤 공과나
초등회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살았다.



2. 아름다운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3.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를 돕고 인도하라고 부탁하셨다.



4.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분은 내 기도
에 응답해 주신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생애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저기
데이비드가 신문을 갖고
오는군!

청소년 시절,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일로서 광산촌에 신문을 배달하는 일자리를 얻었다. 그는 광부들과 친해졌으며 그들은 늘 그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곳까지는 가는 데만 다섯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데이비드에게 책을 읽고, 인용문을 암송하고,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는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간증을 얻기 위해기도를 하기도 했다.



행운을
빈다! 너희 모두가
자랑스럽구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형과 두 누이와 함께 유타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야채, 병조림한 과일, 밀가루, 냄비와 팬, 옷가지 등을 마차에 싣고 솔트레이크시티로 떠났다.



어머니,
고마워요. 자주
편지할게요.

데이비드는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대학 최초의 미식 축구 팀에 가입했다.



그는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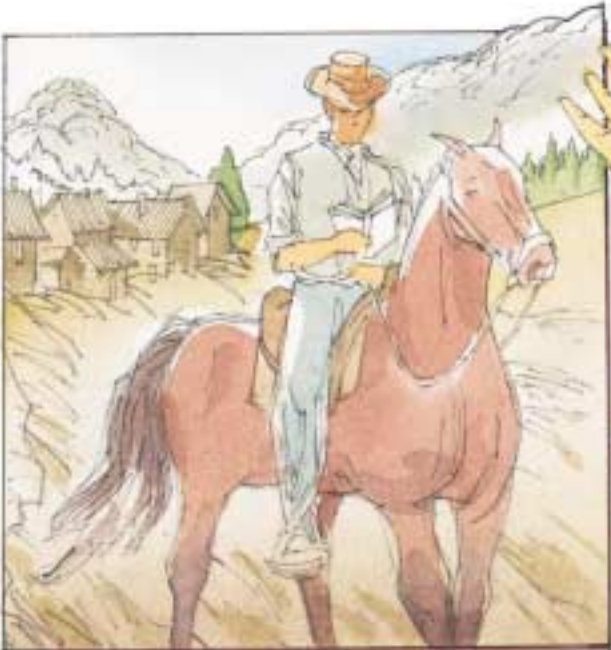


축하한다. 데이비드, 넌
열심히 공부했어.



고맙습니다.

졸업을 할 때, 그는 고별사를 읽는 학생이 되었다. 이것은
최고의 성적을 낸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다.



데이비드는 결코 배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대관장이 되었을 때,
그의 말씀 가운데 일부에는 그가 오래 전 말을 타면서 외운 인용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잔 애링턴 매드슨, 주님은 예언자를 필요로 하신다(1990), 140~141, 143쪽 및
조이 앤 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알려진 이야기(1982년), 17, 24쪽.

네가 스스로 선택하거라

“영생을 가진 자 그가 곧 부자니라.”(교리와 성약 6:7)

수잔 비 미첼

역사 자료에서 발췌한 실화

프리실러의 조부모는 잉글랜드 리버풀에 있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살았다. 프리실러는 아홉 명의 손자 중 네 번째였으며 다른 많은 사촌들이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미첼은 프리실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분들은 항상 그녀에게 선물을 사다 주셨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녀의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부모가 침례를 받았다. 프리실러와 형제 자매들도 침례를 받을 계획이었다.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화가 났다.

프리실러는 전에 할아버지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프리실러의 아버지에게 잊을 수 없는 심한 말로 고함을 쳤다. “아범아, 네 가족을 데리고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집에서는 깜짝 놀란 가족들이 벽난로 주위에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슬퍼 보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 댁을 떠난 이래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프리실러는 혼란스럽고 속이 상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녀는 울었다.

아버지가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할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반대하신단다. 할아버지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하지도 않고 우리가 교회에 계속 나가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는구나.” 아버지는 확고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이 교회는

그분의 참된 교회야.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방법을 찾도록 도와 주실거야.”

프리실러의 가족은 행복해지려고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 자리를 잃고 학교에서 교사 일을 했지만 돈이 모자랐다. 어머니는 옷을 새로 사지 않고 수선해서 입혔다. 프리실러는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생활은 매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었다. 그 분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프리실러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조지 삼촌 내외가 선물과 음식 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서 있었다. 프리실러는 그들을 보자 기뻐했으나 그들은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녀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들의 말소리는 심각하게 들렸다.

“프리실러”라고 마침내 숙모가 불렀다. “너 우리 집에 가서 살면 어떨겠니?”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녀를 입양하고 싶다고 삼촌이 설명했다. 그들이 사는 맨션에는 방도 많고, 더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네 형제 자매들한테도 도움이 될 게다.”라고 숙모가 덧붙여 말했다. 프리실러는 부모가 아홉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간다면, 그만큼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제의는 친절하고 고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프리실러는 짐을 꾸리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게 네 침실이다.”라고 숙모가 말했다. 프리실러는 항상 네 명의 자매들과 함께 방을 썼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방과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숙모는 그녀를 데리고 가서 예쁜 옷을 사 주었다. 옷장은 항상 옷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삼촌 내외는 프리실러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도록 파티를 열 계획을 세웠다. 프리실러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갖고 있었으나, 가족들과 함께 하고 벽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열 번째 생일을 맞던 날 아침, 프리실러는 정원에 있는 집시꽃으로 춤추는 인형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오후에 있을 파티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지만, 집에 있는 자매들이 올 수

있기를 원했다.

갑자기, 키가 크고 몸집이 호리 호리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프리실러는 그에게 뛰어갔다.

“생일 축하해요, 우리 프리실러 공주님”이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프리실러를 팔에 안고 한 바퀴를 빙 돌았다.

“아빠, 생일을 기억하셨군요!”라고 그녀가 외쳤다.

그들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프리실러야, 삼촌과 숙모가 너를 정식으로 입양하겠다고 요청했다.” 프리실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재산과 존경 받는 이름을 물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소식도 있단다. 네 엄마, 언니, 오빠들과 나는 곧 미국으로 가게 된단다.”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다시 돌아오실 거죠?”라고 프리실러가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삼촌과 숙모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들은 너를 잘 보살펴 주고 내가 줄 수 없는 재산과 기회를 내게 줄 거야. 그런데, 미국에 가서 새로운 교회에 참석하며 살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뒤따를 것이다.” 아버지는 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프리실러야, 네가 스스로 선택하거라.”

프리실러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숙모에게 달려가 숙모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숙모, 사랑해요. 항상 기억할게요.”라고 프리실러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침례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했다. ●

수잔 비 미첼은 유타 주 웨스트 바운티풀 스테이크 웨스트 바운티풀 제3와드 회원이다.



“희생의 법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 결과 이 과정은 때때로 어려운데, 그 깨달은 이 과정이 해의 왕국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완전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희생의 법”,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12쪽.

한 자매님의 모범

매튜 카울리 장로(1897~1953)

십이사도 정원회

저에게는 ... 뉴질랜드에 어머니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청년이었던 저는 선교사로 나가 처음 그 자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매님은 저를 아들이라 부르셨고 세월이 흘러 감리 역원이 되어 돌아갔을 때는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

그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키는 작지만 훌륭한 인품을 지니신 자매님이 사시는 동네를 지나는 길에 방문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80이 넘는 연세에 앞을 못보시는 맹인이셨습니다. 자매님이 사시는 곳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들만 방문을 할 뿐 다른 신권 소유자들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멀리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 자매님은 뒤뜰 조그만 화롯가 옆에 계셨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손을 잡아 악수를 하고 코를 비비려고 [마오리 식의 인사]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되신 자매님은 “저와 악수하지 마세요, 장로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매님 손에 묻은 흙은 깨끗합니다. 저는 정말 자매님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매님은 “아직은 안 돼요.”라고

말하고는 손과 무릎으로 그 조그마한 집을 향해 기어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집 한쪽 모퉁이에서 삽을 꺼내 들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거리를 재며 기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어떤 지점에 멈춘 자매님은 땅을 파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단단한 것이 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두 손으로 흙을 긁어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일 항아리를 끄집어 내시고는 그 항아리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어 저에게 내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액수의] 뉴질랜드 화폐였습니다. ...

“제 십일조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와 약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자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매님께서 이렇게 많은 십일조를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은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만큼의 십일조를 내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얼마간의 십일조를 미리 바치는 것입니다. 또 언제쯤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가 다시 이 곳에 들릴지 모르거든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코와 이마를 자매님의 코와 이마에 대었습니다. 저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

성도의 빛, 1974년 12월호, 45쪽.



매튜 카울리는 1945년에 사도로 성임되었다. 그는 젊었을 때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선교부장이 되어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갔다.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중 노릇 하라”(갈라디아서 5:13)

패트리시아 리스 로퍼
글쓴이의 가족의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

데시리는 초등학교 교사인 루이스 자매의 말을 들으면서 의아해했다. 그녀는 루이스 자매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훌륭한 일인 것 같았다. 데시리는 반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데시리처럼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결국 데시리는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게 정말인가요?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나요?”라고 그녀가 물었다.

“그렇다, 데시리.” 말보다도 더 친절해 보이는 교사의 눈빛은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데시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데시리는 그것이 정말로 참된 것이었는지 계속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녀도 알게 될 것이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데시리는 초등학교 교사의 약속을 시험할 기회가 있었다. 하루는 데시리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문에 메모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떼어 냈다. 집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집이 비어 있었다. 이상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데시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았다. 손에 쪽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는 그것을 펴 보았다. 데시리는 그것이 엄마의 필체라는 것을 알았지만 글씨들이 비스듬히 붙여져 쓰여 있었다. 엄마는 데시리가 필기체를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만 것이다.

“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의 말이 떠올랐다. 선생님도 어쩌면 필기체를 읽을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인쇄체와 숫자는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데시리는 루이스 선생님의 전화 번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루이스 선생님은 데시리가 처한 상황을 듣고, 곧 가겠다고



했다. 데시리에게는 선생님이 올 때까지의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루이스 선생님은 다른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10분만에 도착했다.

데시리는 루이스 자매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는 엄마가 남긴 쪽지를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건네드렸다.

루이스 자매는 쪽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이 편지는 엄마가 할머니 집에 이불 만들러 가신다는 얘기야.”

데시리는 갑자기 엄마가 방과 후에 길 건너에 있는 할머니의 집으로 오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엄마는 데시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쪽지를 남겼지만 데시리가 읽을 수 있는 인쇄체로 쓰는 것을 잊고 말았던 것이다.

“할머니 집에 같이 갈까?” 라고 루이스 자매가 물었다.

데시리는 고개를 저으면서 루이스 자매를 쳐다보았다. “이 편지를 읽어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루이스 자매가 미소를 지을 때 데시리는 그녀의 눈이 눈물로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이건 별일도 아니잖니, 데시리. 난 너를 위해 무슨 일든 할 수 있단다.”

“이건 제게 큰 일이었어요.”라고 데시리가 말했다.

루이스 자매는 데시리를 안아 주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기쁘구나.”

데시리는 주의해서 길을 살펴 건넌 후 할머니 집으로 걸어갔다. 루이스 자매는 안전하게 도착하는지 지켜 보고 있다가 차를 몰고 갔다.

데시리가 집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물었다. “어디 갔었니? 걱정했는데.”

“방금 초등학교 선생님이 집에까지 와서 쪽지를 읽어 주고 갔어요.”

“왜 네가 읽지 않고?” 데시리의 엄마가 물었다.

“난 필기체를 못 읽잖아요.”

데시리의 엄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데시리.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선생님이 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 준 것이 기쁘네요.”라고 데시리가 웃으면서 말했다. ●

페트리시아 리스 로퍼는 유타 델타 스테이크 리빙턴 워드 회원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봉사의 가장 고귀한 이유가 됩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 교육”,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96쪽.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로마서 8:16)

마가렛 리퍼스



여러분은 아기를 안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대관장단은 신앙에 충실함이라는 지도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상의 부모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를 위해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옳은 것을 택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많은 것들—아름다운 지구, 경전, 살아 있는 예언자들 및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올바른 것을 택할 경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살피고 인도하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보다 훌륭한 소년 소녀가 ... 될 것입니다. ... 사랑하는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속성]의 어떤 부분을 상속 받은 그분의 자녀, 즉 그분께서 사랑하시고 도와 주시고 축복을 주고 싶어하시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리야호나, 2003년 5월호, 119쪽)

하나님의 자녀 왕관 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왕관 테를 만든다. 친구 15쪽을 떼어 내고, 그것을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테에다 거울이나 여러분의 사진을 붙인다. 테, 테에 있는 갈라진 틈(슬릿), 그리고 왕관 컷아웃(오려내는 부분) 부분을 잘라 낸다. 왕관 컷아웃(오려내는 부분)에 있는 공백을 채운다. 매달 테에 있는 갈라진 틈(슬릿)에 왕관에 있는 탭을 끼워 넣음으로써 테에다 새로운 왕관을 붙인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에 있는 다음 구절들을 외우도록 도와 준다. (겔 표지 안쪽):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며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따르려고 노력한다.” 기도에 관한 경전 이야기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배에 있는 니파이와 그의 형들(니파이일서 18장 참조)이나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다니엘 6장 참조)등과 같은 이야기가 좋다. 간단한 의상이나 이름표를 사용하여 이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하고 난 후에, 기도의 원리에 대해 토론한다. 어린이들과 함께 암송한 줄을 반복한다. 각 반에게 기도에 관해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에 대해 조용히 토론하게 한다. 각 반에서 어린이 한 명을 선택하여 그 이야기를 전 초등학교에 말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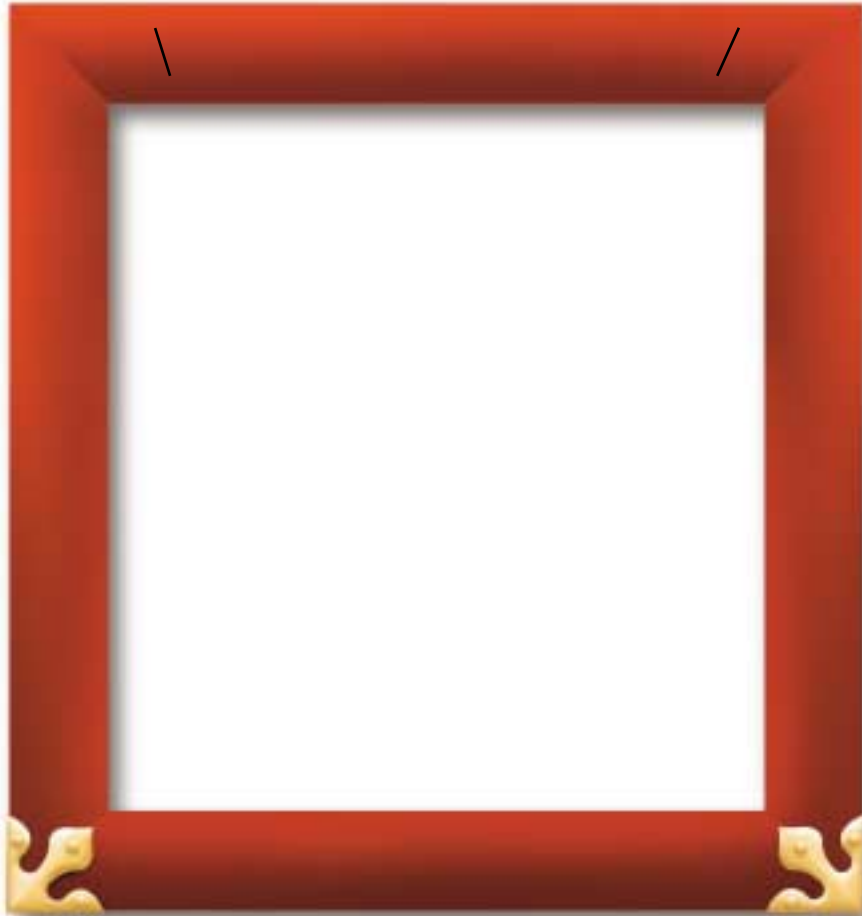
2. 지상 생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의지(자유의지가 아니라, 선택의지 혹은 도덕 의지) 라고 한다.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올바른 것을 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다. 경전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과 함께 그분께 인도하는 10보 정도 되는 길, 그리고 길 끝에 종이로 만든 어린이를 걸어 놓는다. 각 반에 다음 성구 중 하나가 적힌 도로 표지 모양의 종이를 준다. 출애굽기 20:8; 마태복음 19:18; 니파이일서 32:9; 모사이아서 13:20; 니파이삼서 12:34; 교성 42:21; 교성 42:27; 교성 51:9; 교성 89:7~8; 교성 119:4. (어떤 반은 종이를 하나 이상 받을 수도 있다.) 각 반으로 하여금 참조 성구를 찾아보게 하고 종이에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원리를 적게 한다. “도로 표지”를 걸어 놓는다. “도로 표지” 중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하나를 결정하게 하는 사례 연구를 준비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 친구에 대해 불친절한 말을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어린이들에게 대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을 향한 길에 있는, 종이로 된 어린이를 옮겨 놓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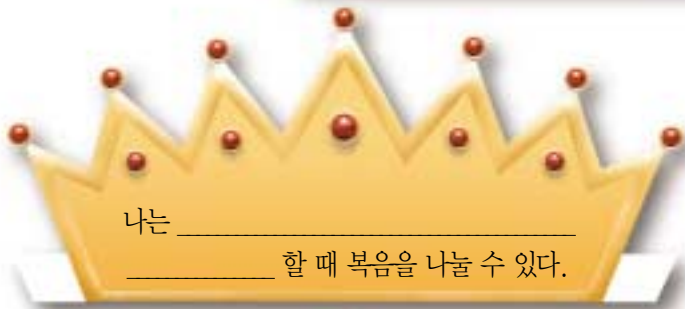
나는 _____
_____ 할 때 더 친절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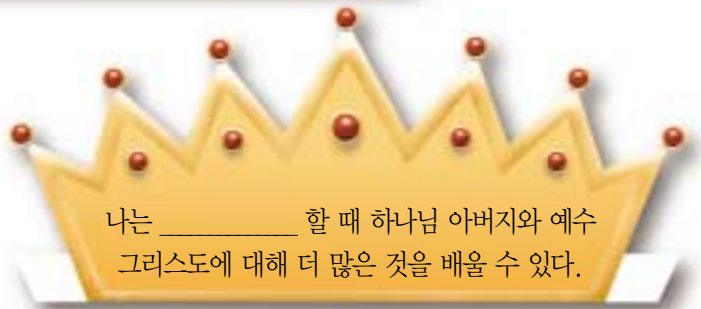
나는 _____
_____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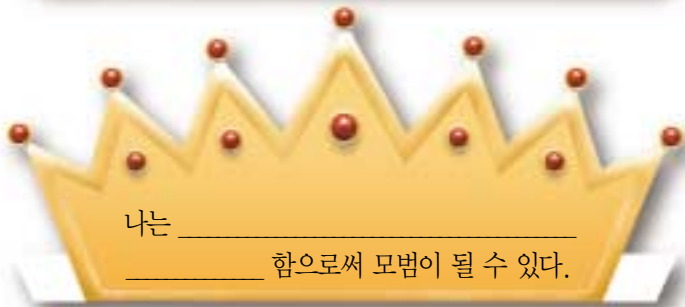
주: 리아호나에서 이 쪽을
떼어 내고 싶지 않을 경우,
인터넷 www.lds.org에서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다른
언어는 세계 지도에서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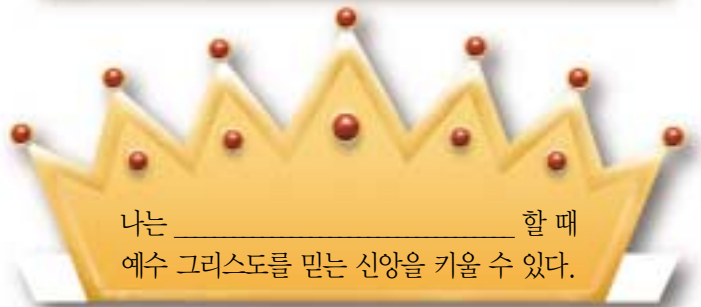
나는 _____
_____ 할 때 복음을 나눌 수 있다.



나는 _____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나는 _____
_____ 함으로써 모범이 될 수 있다.



나는 _____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의 숫자를 찾을 수 있나요?

삽화: 아담 코포드